

2022 제6회 제주학대회 학술대회

제주고문서 과거의 유산, 미래의 문화자산으로

- 일시: 2022년 10월 5일(수) 13:00
- 장소: 아젠토피오레컨벤션 1층 컨벤션홀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2022 제6회 제주학대회 학술대회

제주고문서

과거의 유산, 미래 문화자산으로

- 일시: 2022년 10월 5일(수) 13:00
- 장소: 아젠토피오레컨벤션 1층 컨벤션홀

2022 제6회 제주학대회 학술대회

제주고문서 과거의 유산, 미래의 문화자산으로

- 일시: 2022년 10월 5일(수) 13:00
- 장소: 아젠토피오레컨벤션 1층 컨벤션홀

13:00~13:30	등록	
13:30~14:00	개회식	
14:00~14:30	기조강연	고문서 연구 현황과 지역학 이해준(공주대학교 명예교수)
	휴식 시간	
	1부 주제 발표 (좌장: 홍기표 전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14:40~15:10	민간소장 고문서 조사·수집·연구 성과와 과제	권진호 (한국국학진흥원 국학기반본부장)
15:10~15:40	제주지역 자료의 조사·수집·연구 성과와 과제	정수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문서연구실장)
15:40~16:10	제주학연구센터의 고문서 조사·수집 성과와 과제	임승희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16:10~16:40	제주고문서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제언	정제규 (문화재청 전문위원)
16:40~17:00	휴식 시간	
	2부 종합 토론 (좌장: 김동전 제주대학교 부총장)	
17:00~18:00	조미은(한국학중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박용범(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연구과장) 강문종(제주대학교 교수) 이욱(순천대학교 교수)	

※ 학술대회는 유튜브(@제주학연구센터)에서 생중계 됩니다.

목 차

■ 개회 행사

- 인사말 4
- 격려사 6
- 축 사 8

■ 학술 대회

■ 기조 강연

- 고문서 연구 현황과 지역학 9
이해준(공주대학교 명예교수)

■ 1부 주제 발표

- 민간소장 고문서 조사·수집·연구 성과와 과제 25
권진호(한국국학진흥원 국학기반본부장)
- 제주지역 자료의 조사·수집·연구 성과와 과제 39
정수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문서연구실장)
- 제주학연구센터의 고문서 조사·수집 성과와 과제 53
임승희(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 제주고문서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제언 73
정제규(문화재청 전문위원)

■ 2부 종합토론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영글어 가는 가을입니다. 이 좋은 시기에 제6회 제주학대회를 열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는 매년 10월 첫째 주를 제주학 주간으로 설정하여 제주학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6회째를 맞이하는 올해는 “제주학으로 노닐다”는 주제로 많은 도민들이 제주학과 함께 노닐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들을 기획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제주학대회 학술대회는 국내 유수의 연구자들을 모시고 “제주 고문서: 과거의 유산, 미래의 문화자산으로”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고문서는 우리 조상들의 삶과 문화가 담겨있는 소중한 기록 유산입니다. 그 중요성 때문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중앙 정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국학’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의 고문서들을 수집, 보존, 연구, 활용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학연구센터 역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제주 지역의 고문서를 수집,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주 고문서에 대한 전수조사,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동료 연구자와 도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제주 고문서 연구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제주 고문서가 과거의 유산에 머물지 않고, 미래 문화자산으로 그 중요성이 인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기조강연을 위해 먼 곳에서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이해준 공주대학교 명예교수님께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좌장을 맡아주신 김동전 제주대학교 부총장님과 홍기표 전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님, 주제발표를 해주시는 권진호 한국국학진흥원 국학기반본부장님, 정수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문서연구실장님, 정제규 문화재청 전문위원님, 우리 센터 임승희 전문연구원님, 토론을 해주실 조미은 한국학호남진흥원 기획연구부장님, 박용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연구과장님, 강문중 제주대학교 교수님, 이욱 순천대학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0월 5일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김 순 자

격려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6회 제주학대회 학술대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제주학의 성장과 대중화를 위해 매년 제주학대회와 제주학 주간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주 고문서: 과거의 유산, 미래의 문화자산으로’를 주제로, 지역에 산재한 고문서들의 조사·수집·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타지역보다 고문헌이 부족한 탓에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만큼,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많은 의견들이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제주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짚어가는 과정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열어가는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혹은 잃어버렸던 제주의 참된 가치를 재조명하여 오늘의 제주를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밑거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제주도정은 제주인의 지혜와 강직한 역사가 담긴 옛 문서들이 제자리를 찾아 그 가치를 다할 수 있도록, 고문서 수집과 보존·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6회 제주학대회 학술대회가 제주를 포함한 국내 고문헌의 활용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소중한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제주학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격려사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제주학대회’가 올해로 6회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꾸준히 제주학대회를 준비하고 개최해온 제주학연구센터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제주역사문화기반 구축을 문화예술 공약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11년 간 한결같이 제주의 역사와 문화, 언어를 연구하고 지원해온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점에서 옛 제주인들의 삶과 문화가 기록되어 있는 고문서의 발굴과 수집 및 보존, 연구와 활용은 제주역사문화기반 구축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 고문서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 고문서: 과거의 유산, 미래의 문화자산으로’라는 주제로 제6회 제주학대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 고문서에 대한 도민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체계적인 고문서 조사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주학대회를 통해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역사문화기반 구축을 선도하는 제주 대표 연구기관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제주연구원은 제주학연구센터가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제주학대회를 위해 노력해주신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고마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함께해주신 여러 내빈들과 도민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0월 5일

제주연구원장 직무대행 **이 성 용**

축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경학입니다.

제6회 제주학대회 학술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제주학에 대한 소중한 학술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의 역사와 민속, 언어, 인문과 사회 등 지역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그동안 조사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문서와 관련된 구는 비교적 활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고문서는 우리 조상들의 삶의 산물인 동시에 당시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문화와 사회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고문서를 통해 당대의 지식 체계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미시적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아서 전해지는 고문서와 기록물의 전반적인 자료의 조사, 수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주 고문서: 과거의 유산, 미래의 문화자산으로”를 주제로 열립니다.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제주 고문서 조사 수집은 물론 보존, 관리에 대한 지혜를 통해 우리 유산인 제주 고문서를 미래자산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제주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당대의 어휘 및 표기법에 대한 연구와 변천사의 연구 영역이 보다 확대되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발제와 토론으로 함께해주시는 전문가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 경 학

■ 기조 강연

고문서 연구 현황과 지역학

이 해 준 (공주대 명예교수)

고문서 연구 현황과 지역학

이 해 준 (공주대 명예교수)*

한국사연구는 대부분이 중앙 지배권력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정치·경제·군사 행정 등 제도변화나 인물 사건 이해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민이나 지역의 역사문화는 사장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더하여 지역사, 지역문화 연구도 고고학이나 미술사, 민속 부면에 집중된 경향이어서 역사적인 연구에는 약간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각 시대, 각 지역의 문화들은 잘 알려지듯 문화가 생성되는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과 특성을 갖기 마련이다. 이렇게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범위를 지닌 지역문화를 국가사, 전체사, 중앙사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규정하게 되면, 그 독자적인 개성들은 무시되기가 쉽고 때로 전혀 돌연변이적인 사실들을 과장함으로써 지역 성격을 잘못 규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료가 지니고 있는 ‘지역성이나 개별성’(형성기반과 배경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채 종적·횡적으로 직접 대비시킬 경우 지방사가 호도되거나 평가 절하될 가능성도 많다.

이에 더하여 지역의 역사와 기록자료들은 각기 특정한 지역 기반과 성격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자료들 사이에도 구조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설정되게 마련이다. 바로 이같은 자료들을 ‘작성 지역과 시기’ ‘주체의 입장’에서 총체적·구조적으로 주목하는 시각, 그러한 연구방법론이 곧 ‘지역사 연구’ 혹은 ‘지역자료 이용’의 기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같은 지역사 연구의 본질적 성격과 관련하였을 때 다른 분야들에 비하여 ‘고문서자료’의 조사와 정리는 보다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보여진다.

오늘 귀중한 연구발표에서 필자는 “고문서 연구 현황과 지역학”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다. ‘지역사’, ‘지역학’이라는 관점과 고문서를 연계시켜 보는 저의 발제가 혹여 깊이나 방향, 연구사적 정리에서 한계나 편향적 시각도 없지 않을 듯하여 걱정도 된다. 그러나 뒤이어 전문연구자분들의 [관찬사료](정수환), 그리고 [민간 소장 고문서](권진호), 제주학 제주도고문서에 대한 별도의 발제(임승희, 정제규)가 진행되므로 저의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 분들의 발제를 통하여 보완, 충족하여 주시기 바란다.

* 목포대 교수(81-94), 한국역사민속학회 회장(96-98),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99-01), 역사문화학회 회장(08-10), 공주대 문화유산대학원장(11-13), 한국서원학회회장(11-14),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13-1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05-15), 공주대 사학과 교수(94-19) 역임.

1. 지역사, 지역문화와 고문서

관찬의 중앙역사기록에서 지역사, 지역문화와 관련한 자료의 부족과 빈곤은 한계로 지적된다. 역사연구에 흔히 이용하는 관찬의 년대기나 법전, 총집류들의 대부분은 지배층 혹은 중앙중심적인 내용으로 일관되기가 일쑤이며, 이에 따라 지방사와 연관된 자료들은 부정적이거나 폄하, 평가 위주의 기록이 많았고, 일반 민중들의 생활상은 거의 노증되지 않는다.

자료의 기본량에 있어서도 그렇고, 각 자료들이 내용이 중앙중심의 평가로 부정적이거나 단편화, 분산화되어 있어 한 지역의 역사상을 체계적·구조적으로 규명하기에는 한계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나 타지인들의 지역관련 기록들은 대개 지방관이나 유배자, 여행자들의 문집이나 일기자료, 여행기 등에서 보이며, 기록자들의 성격에 따라 그들 나름의 평가를 우선하거나 반영한 경우들이 많다.

그리하여 지방관련 기록의 경우 1차 사료라 하더라도 (1) 내용과 실제의 구조적 차이, (2) 자료 생성의 배경과 지역적·시대적 의미가 모두 같을 수 없다는 점, (3) 자료의 작성 주체가 지나는 사회적 인 성격이 각각 다르다는 점, 또 (4) 드러난 자료들의 비중범위가 매우 부족할 경우도 많다. 그리하여 지역사, 지역문화의 주체적·종합적인 정리는 항상 한계가 많다고 보여지기도 하였다.¹⁾

바로 이같은 지방사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관련시켰을 때, 지역 ‘고문서자료의 조사와 정리’는 아주 많은 지역 특성을 보여줄 귀중한 작업이고 연구라 할 것이다.

고문서자료는 정부의 편찬물이나 법전, 역사서, 개인의 문집들에서 보이는 편찬자의 입장, 목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 취사 선택된 자료들과는 차이가 있다. 즉 지방의 고문서자료들은 당 시대를 살아간 생활인들의 숨김없는 생생한 자취이자 윤색·변조될 여지가 전혀 없는 자료들이기 때문이다.

즉 역사 편찬 기록, 전적류와 달리 “古文書”는 그것을 만드는 주체와 반드시 소지하게 되는 특정한 대상이 있게 마련이며, 또 이 수급자와 발급하는 사이에는 특정 목적이 개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발급자(甲)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자(乙)에게 전달한 문서’인 셈이다. 그리하여 고문서자료는

- 특정 목적과 특정인(기관)간의 수수 관계가 명백하며,
- 따라서 작성의 주체와 작성 목적, 과정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
- 그리고 실생활의 거짓 없는 자취라는 점

에서 자료 확보의 측면에서도 그러하지만, 특히 지역사연구에 있어서 기본 목적이라 할 ‘지역적 특징’을 구조적으로 실증하여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고문서자료’는 편찬기록류가

1) 이에 따라 지역사, 지역문화의 주된 분야가 이러한 문헌 자료가 검출되지 않아도 가능한 민속이나 구전·민담, 그리고 고고·미술사 관련 유적·유물의 확인 등에 집중되어 왔고, 문헌자료라 하여도 중앙의 官撰 正史 기록이나 邑誌類와 같은 아주 기초적인 기록에 의존해왔던 시기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가지는 중앙중심적, 지배적 인식의 반영과는 차이가 있는 지역사적 사료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2. 고문서의 분류 체계와 지역성

2-1. 고문서로 다시 보는 지역사, 생활사

각 지역, 시기, 분야별 고문서자료들은 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주고 받은 문서들로서 거짓이 없는 생활사의 여실한 기록일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사회상과 문화의 단면을 보여 주는 1차 사료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문서 조사와 연구에서 가장 기본은 ‘언제, 누가, 어떤 목적에서, 누구에게 준’ 문서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다. 고문서는 명확한 授受關係와 目的이 명시되기 때문에 문서로서의 公信力을 갖게 마련되며, 그 때문에 생생한 역사자료로서의 가치가 다른 어느 기록물보다도 높게 평가되는 것이다. 즉 정부의 편찬물이나 개인문집들이 편찬자의 입장, 목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 취사선택된 것인데 반하여, 고문서는 당 시대를 살아간 생활인들의 숨김없는 생생한 자취인 점을 주목할 수 있는 것이다.

고문서자료는 관찬 중앙기록물과 달리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작성하였는가에 따라 유형과 내용, 그리고 역사적 성격은 매우 다양하게 점검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고문서는 (1) 유형별 (2) 작성 주체별 (3) 자료 대상범위별 (4) 내용과 성격별로 다른 분류가 가능하기도 하다. 그리하여 많은 경우 고문서의 정리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분류를 보면

- ① 호적 문서 : 戶口單子, 準戶口, 戶籍中抄, 戶籍臺帳, 新戶籍
- ② 과거 교육 : 試券, 紅牌, 白牌, 榜目, 考(課)講單子,
- ③ 관리 임용 : 教旨(告身, 追贈, 諡號, 賜牌), 教牒(代加), 錄券, 祿牌, 差帖, 望記
- ④ 명령·보고 : 解由文書, 傳令, 牒呈, 帖文,
- ⑤ 청원·민원 : 上疏, 上書, 所志(等狀, 單子, 原情), 議送, 原情, 立案, 完文, 通文, 稟目
- ⑥ 거래·매매 : 賣買立案, 明文, 手標
- ⑦ 성책문서 : 鄉約, 洞約, 事蹟記, 用下記, 傳與記, 書院誌, 寺刹誌, 各種 契

등이 일반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함께 자료의 성격이 매우 특별한 것으로 문중문서, 향교 서원사우 문서, 촌락문서 등도 보인다. 이들은 아주 세분하면 더욱 면밀하게 살필 수가 있다.

예컨대 문중 관련고문서로는 宗契, 族契(座目), 宗中日記, 節目, 收租錄, 置簿冊, 奴婢案, 田畝案,

量案, 秋收記 등의 경제문서라든가 人物 관련 천장, 정려 포장, 문중 건물의 중수기나 문임록(유사록), 완의, 입의, 절목, 통문 등등 매우 다양하다. 鄉校·書院·祠宇 자료는 더욱 다양하고 지역적 특성이 전하는 것으로 인명록이라 할 儒案, 院生案, 靑衿案, 齋任案(有司案), 院直案이라든가 규약과 절목류 자료로 각 지역마다 規約, 節目, 立議, 完文, 薦狀, 通文, 上書, 稟目, 所志類, 建立疏, 請額疏 문서, 그리고 顧往錄, 尋院錄, 時到記, 義捐錄과 例扶記, 除役文書, 田畝案, 奴婢案, 捧賭記, 傳與冊 등의 경제자료도 매우 다양하다. 그런가하면 의례와 관련한 笏記, 記文, 祭文, 祝文, 이라든가. 교육과 관련한 講案, 講規, 學規, 節目 등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촌락과 관련된 고문서²⁾로는 조직문서로 洞契, 洞約(立議, 完議), 大同契, 村契라든가 경제관련 자료로 田畝案, 置簿冊類라든가 마을 조직으로 農契類, 東床契, 書堂契, 松契, 禁松契, 喪輿契 등등의 자료 등이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약간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와 같은 고문서는 국가나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공문서와 같은 문서 만에 국한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지역문화와 관련하여 보다 넓은 의미의 “옛문서”들에 대한 생각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즉 ‘생활문화 고문서’ 자료가 바로 그러한 것들로 발급자나 수급자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수수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생활의 현장에서 삶의 흔적으로 남아 전하는 생활문서류들이 많다. 바로 이들도 지역사, 지역문화 연구 자료로써 활용되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³⁾

물론 성격별, 주제별, 형태별 분류의 문제는 자칫 자료의 성격을 어느 한 부면으로 축소 시킨다거나 단편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구조를 전제하여 각 자료들이 그 같은 구조 속의 어느 부분에, 그리고 어떠한 유기적인 관계 하에서 위상이 마련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면 부정적인 평가는 줄어들 것이다.

2-2. 지방 고문서 분류의 체계(사례)

특히 기존에 고문서자료집을 간행한 정신문화연구원이나 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각 대학의 경우는 유형별 분류를 주로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장처별 자료모음이어서 그런 것이라고 보이고 만약 전통적인 ‘군현, 지역, 소장처’ 단위의 고문서수집과 정리를 할 경우는 분류체계가 약간 달라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우리가 주목하는 지역 관련 고문서의 분류에서 첫째로 참고해 볼 분류체계는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시기 사회사연구법』의 분류안이다. 이는 아주 오래 전인 1990년에 군현 단위 지역사(사회사) 자료를 국가, 사족, 민, 기타 등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제기하였던 분류(안)이었다.

2) 이해준, 2006, 「조선후기 촌락문서의 생산과 관리」 『고문서연구』 28집, 한국고문서학회

3) 국립민속박물관, 1991, 『생활문화와 옛문서』(책임연구 이해준)

◇ 사회사자료 분류⁴⁾

· 국가의 지방통치 자료

통치기구 : 外官體系 / 地方官衙 / 鎮關·郵驛 / 面里조직 / 儀式·祭儀
부세와 재정운영 : 戶籍·量案 / 三政 / 民庫와 雜役 / 邑事例 / 기타
對民지배와 민의 동향 : 民政指針자료 / 別單 / 邑弊·民弊上疏 / 報牒·啓錄 / 民狀·檢案
행정실무계층 : 鄉吏자료 / 軍校자료 / 面里任 자료

· 사족의 조직과 대민지배자료

향안·향규 : 鄉案 / 鄉規
향약·동약 : 鄉約(面約) / 洞約(洞契) / 詩社(樓亭)
서원·향교·기타교육 : 書院 / 鄉校 / 司馬齋 / 養士齋 / 書齋·講舍·書堂
문중조직 : 族契 / 族譜 / 門中古文書 / 旌閭 및 門中機構 / 기타
地主經營 및 奴婢 : 경영자료 / 물적기반 / 소송자료

· 민의 조직과 생활자료

촌제·동제·두레 : 村契 / 洞祭(堂山祭) / 두레
각종 契 : 喪(輿)契 / 松契 / 工契·匠契·商契 / 學契 / 기타
생활사자료 : 家訓·庭訓·內訓 / 生業曆과 歲時 / 場市와 道路 / 聚落과 建築

· 기타자료

지리지·지도자료 : 全國地理志 / 地方誌(邑誌) / 關防誌 / 古地圖
사찰자료 : 寺蹟記(寺誌)·金石文 / 僧役자료 / 佛契와 佛寶 / 傳與記錄
개인자료 : 古文書 / 文集(연보·경제·신분·사상) / 日記 / 기타

이상에서 보듯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지방의 고문서자료를 4구분하여 각각의 특성과 상관관계를 지역사의 구도 속에서 살필 수 있고, 지방사연구에 활용될 고문서자료에 대한 총체적 시각을 마련하려 하였던 분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문서들의 내용에 따라서 같은 유형의 고문서가 각기 다른 주체별로 분류된다든가, 같은 소장처의 고문서들이 분리되는 혼돈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두 번째로 보이는 지역사, 문화의 고문서자료 분류는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양식화된 공문서 중심의 기록문서는 아니지만, 지역의 생활문화와 의례, 공동체 문화를 보여주는 자료로 국립민속박

4) 이해준, 김인걸 외, 1993,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물관에서 역사학자와 민속학자·사회학자들을 합류, 논의하게 하여 만든 또 다른 분류 체계이다. 이는 고문서 전문가들이 볼 때에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지역의 독특하고 특별한 생활문화를 보여주는 고문서를 직접 대상으로 포함하여 다룬 분류이다.

◇ 『생활문화와 옛 문서』(국립민속박물관)⁵⁾

- 생업경제 : 농업/거래관행·상공업/어업
- 의 식 주 : 의생활/식생활/주거·건축
- 평생의례 : 출산의례/관례/혼례/회갑·회혼례/상례/제례
- 신앙의례 : 무속/동제/불교
- 교 육 : 조직과 운영자료/연혁 및 경제자료/교과서·가정교육/교육의례
- 신분사회 : 호적/신분/과거/관리임용/명령 및 보고/민원 소송/부세
- 가족친족 : 족보류/문중자료/상속자료
- 촌 락 : 촌락조직/농업관련 노동조직/계조직
- 개인생활 : 문집/년보/전기/행장/일기/유서/간찰/평생사주/백수문
- 기 타 : 가사/악보/승경도/승람도/윤도/천문도/경혈도/읍지·면지/지도/진법도/노정기/여행기/답산가/단방기 병록

이 국립민속박물관의 『생활문화와 옛 문서』분류는 시·군단위로 향토사연구자들이 유전되는 고문서자료를 정리, 전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분류체제별로 시기별 배열을 한다면 그대로 지역사 자료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류방식도 고문서 유형보다 내용별로 분류를 한 것이어서 주체나 소장처가 분리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세 번째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이러한 고문서 분류에 이어 유형별 분류체계를 『한국고문서 정리법』(1994)에 다음과 같이 만들어 제시하기도 한다.

◇ 『한국고문서정리법』(한국정신문화연구원)

- ① 총류
- ② 교령류(책문, 교지)
- ③ 소·차·계·장류(계초, 단자, 품목)
- ④ 첩·관·통보류(관문, 첩증, 첩보)
- ⑤ 증빙류(자문, 입안, 완문, 수표, 입의, 유서 등)

5) 이해준 외, 1991, 『생활문화와 옛문서』 국립민속박물관(책임)

- ⑥ 명문·문기류(명문, 분재기)
- ⑦ 서간·통고류(서간, 간찰)
- ⑧ 치부·기록류(추수기, 치부, 시도기, 일기, 비망기)
- ⑨ 시문류(사, 부, 시, 문)
- ⑩ 외교문서류(진하, 방물, 사은, 외교문서)

물론 이 분류는 '단순화, 체계화'의 목적은 이루었지만, 자료의 내용성과 작성주체, 성격별 분류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다음 네 번째로 시도된 고문서 분류체계는 고문서학회에서 만든 안으로 중앙의 관찬 고문서만을 대상으로 하던 문제점을, 지역의 문중 소장 고문서들을 수집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생활사'라는 측면에서 분류해 본 것이다.

◇ 『조선시대 생활사』(고문서학회) 6)

- 가정생활 : 친족과 혼인/상례와 제례/재산상속/여성생활
- 공동체생활 : 촌락생활/어촌생활/신앙과 놀이
- 신분별 생활상 : 관료생활/중인생활/향리생활/평민생활/노비생활
- 제도와 생활 : 교육제도/과거제도/법률생활/호적제도
- 경제생활 : 농업경제/서울 상업/지방상업

이를 통하여 관찬 행정 문서류의 범위를 넘어서는 생활사 문서들을 분류한 것이다. 이전 시기와 다르게 이 시기에 지역 문중소장 고문서 조사가 매우 활발해지고 고문서 수집 정리의 움직임이 많을 때여서 이러한 분류체계도 유용하였던 것이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에 뒤이어 고문서학회에서는 2003년에 이러한 다양한 분류의 흐름을 포괄하여 고문서의 분류체계를 시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공동으로 제안되었던 분류체계 시안이 바로 다음의 것이었다. 이 분류체계는 고문서의 성격에 따라 발급자-수령자, 문서 형태, 문서 내용별로 구분하고 있다.

◇ 고문서 분류체계 시안(고문서학회)7)

- 발급자-수령자별

6) 한국고문서학회, 1996, 『조선시대 생활사』(역사비평사)

7) 이해준, 2003, 「고문서 분류체계 시안」, 『고문서연구』 22집, 한국고문서학회

100 국왕문서
200 왕실문서
300 관부문서
400 관인문서
500 민 문서
600 사회조직 문서
700 기타

· 문서 형태별

100 教令類
110 冊文 120 教書 130 諭書 140 教旨 150 錄券 160 受教
200 上疏請願類
210 上疏 220 箭子 230 啓聞 240 稟目 250 所志
300 關帖文類
310 關文 320 牒呈 330 牒報 340 傳令 350 解由 360 俵目 370 甘結 380 望記
390 單子
400 明文完議類
410 明文 420 尺文 430 分財記 440 立案 450 完文完議 460 手票 470 節目
500 物目置簿類
510 物目單子 520 傳與記 530 置簿記 540 奴婢田畝案 550 用下記 560 秋收記
600 書簡文類
610 書簡 620 通文 630 祭文 640 備忘記
700 成冊文書類
710 量案 720 戶籍 730 鄉約洞約 740 族契 750 各種契 760 名案
800 外交文書類
810 進賀 820 方物 830 謝恩 840 陳慰 850 告訃 860 기타
900 기타

· 문서내용별

100 정치·행정
110 교령 120 관직 130 명령 140 보고 150~
200 산업·경제
210 생업경제 220 재산 230 매매 240 교역 250 기술 260~
300 사회·법제

310 청원 320 소송 330 호적 340 친족 350~
 400 교육문화
 410 교육 420 과거 430 문화 440 종교 450~
 500 민속생활
 510 의례 520 신앙 530 의식주 540 촌락 550 민간예술 560~
 600 지리 기타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필자는 이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전통마을의 고문서 정리 분류, 그리고 한말 일제강점기, 근 현대의 고문서 정리도 작업의 대상으로 분류를 시도한 바도 있다.⁸⁾

2-3. 제주지역의 고문서 자료⁹⁾

이어서 본 발제에서는 지역 고문서의 전승 사례와 조사·수집·연구의 예로 제주도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앞에서 소개 정리한 고문서의 분류와 체계와 다르게 지역에서 수집 정리되는 자료들의 성격과 특성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분류와 양식보다 고문서의 지역별 차별성과 특성이 보이는 고문서 분류와 정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하며 소개하는 것이다.

제주의 고문서 자료들은 마을 고문서자료로는 2007년 제주문화원에서 발간한 고창석 역해 『하가리 소장 고문서(영인본)』가 주목되었고, 2011년 12월에는 서귀포문화원에서 안성리 소장 고문서 및 고서를 소개하고 해제한 『우리고장의 기록문화유산』을 출간하였다. 이어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2009년-2015년에 수산리, 중엄리, 하가리 등 3지역에서 보관해 오던 고문서 116점과 9개 성씨 가문에서 소장해 오던 고문서 총 1,534점을 정리한 영인자료집으로 『고문서집성 108』(2014), 『고문서집성 110』(2014), 『고문서집성 114』(2015)을 발간했다.

『고문서집성 108』에는 제주시 애월읍에 소재하는 수산리(24점), 중엄리(57점), 하가리(35점) 마을에서 보관해 온 18세기 말 무렵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호적자료(호적중초, 민적부, 호적부 등)를 비롯하여 제주의 부세운영 관련 문서들, 그리고 마을 운영 관련 문서 등 총 116점이 소개 수록되었고, 『고문서집성 110』에는 제주도에 입도하여 세거해 온 진주강씨, 김해김씨, 동래정씨 후손가의 고문서 총 697점이 조사되어 수록되었다. 『고문서집성 114』에는 진주강씨, 곡산강씨, 김해김씨, 동래정씨 가문의 후손가와 경주김씨문중회, 제주고씨종친회 등의 고문서 837점을 수록하였다.

8) 이해준, 「한말-일제시기 생활일기를 통해 본 촌락사회상」 『정신문화연구』 53집, 199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근·현대 지방사료 수집의 방향과 과제」 『웅진문화』 14집, 2001, 공주향토문화연구회 : 「조선후기 촌락문서의 생산과 관리」 『고문서연구』 28집, 2006, 한국고문서학회

9) 홍기표, 2017, 「제주 고문헌과 고문서」, 『제주학 개론』,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이외에 저명인물 문집에도 제주의 시대 상황과 특별한 지역문화를 전하는 자료들이 많다.

이들 가문에 소장된 고문서 고산·차첩·전령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 특히 제주 지역에서 임명된 관직 이력을 살펴볼 수 있고, 첩장·서목·전령 등을 통해 제주 지역에서 어떠한 명령이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호구단자·준호구 등을 통해 각 가문의 호구를 파악할 수 있으며, 명문·분재기를 통해 조선시대 제주 지역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규명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가문의 역사와 제주 지역의 제도·사회문화·경제생활 등을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조선후기 제주지역사와 관련된 지방관의 보고서 사례로서 제주목의 장계·서계첩 자료가 보존되어 전하여 주목된다. 『탐라장계초』(1702년), 『서계집록』(제4책, 박천형의 서계, 1781년), 『탐라계록』(1841-1843), 『탐라목관첩』(1845-1854), 『제주계록』(1846-1884) 등이 그것이다. 이들 자료들은 제주목사들이 재임중에 제주의 현안 및 사회경제상을 조정에 보고한 문서로 이형상 목사의 『탐라장계초』에는 공물, 포작, 잡녀, 부세, 계후, 시사, 제례, 마정, 농사 등이 기록되어 있고 아주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이원조 목사의 『탐라계록』에는 이양선 출현, 조난사고, 굴의 작황 및 진상, 말의 진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목사 6인(권직, 이의식, 장인식, 이현공, 백희수, 목인배)이 조정에 올린 장계(99건)를 정리한 『탐라목관첩』은 이양선 및 표류민, 굴나무 현황, 환곡 및 군역의 폐단, 우도와 가파도의 개간과 입주 등이 기록되어 있다.¹⁰⁾

제주목과 정의현에서 작성한 절목류 자료도 전하는데 정의현감 윤신흥이 1758년(영조 34)에 만든 『안민고절목』은 안민고의 운영 세칙을 기록한 시행령이고, 제주목사 심낙수가 1794년(정조 18) 제정한 『목장신정절목』은 산마장(침장, 상장, 녹산장)의 경작자들로부터 받아 오던 세금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만든 시행령이다.

그리고 『탐라순력도』(보물 제652-6호)는 1702년(숙종 28) 제주목사 이형상이 한 해 동안 제주 각 고을을 순시하며 거행했던 여러 행사 장면을 기록한 채색 화첩이다. ‘순력도’라는 이름의 기록화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것으로 18세기 초 제주도의 관아 건물, 군사 시설, 지형, 풍물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성책 문서로 제주지역의 사정과 특징을 외지인의 눈으로 기록한 기행록들도 주목된다. 제주기행록은 제주목사와 안무어사, 그리고 제주도 유배인들이 제주에서 보고 느낀 문화를 기록한 자료들로 김정의 「제주풍토록」, 김상헌의 「남사록」, 이건의 「제주풍토기」, 이증의 「남사일록」, 이익태의 「지영록」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당대의 제주를 이해하게 하는 매우 귀한 자료로 김정의 「제주풍토록」은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제주에 유배왔다 1년 만에 사사된 김정이 그의 생질에게 제주의 풍토와 물산에 대해 적어 보냈던 편지들로 제주의 기후, 가옥구조, 풍속, 신앙, 민정, 토산 및 그의 유배 생활 등을 기록하여 제주 최초의 풍토지로 알려진다. 김상헌의 「남사록」은 1601년(선조 34)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6개월간 안무어사로 제주에 파견된 김상헌의 일기체 기행문으로 한라산

10) 고창석·김상옥 역주, 2012, 『제주계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고창석 역해, 2017, 『탐라계록·제주목관첩』, 제주교육박물관.

산신제 거행, 문무과 시행 및 제주의 방어시설, 과원 및 공물의 자세한 실정 등이다. 김상헌은 제주의 역사, 풍속, 토산, 문화유적 등을 언급하며 이전의 제주 자료들도 인용하여 17세기 이전까지 제주 실정이 아주 종합적으로 기술된 당대 최고의 제주 해설서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제주에 유배 온 왕족 이전의 「제주풍토기」도 1628년부터 1635년(인조 13)까지 약 8년간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며 제주의 풍속, 생업활동, 신앙, 동식물 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자신의 느낌을 기록한 자료로 전한다.¹¹⁾

3. 지역사와 고문서 조사연구

이상에서 기존의 고문서 분류 체계와, 그를 통하여 고문서가 지니고 있는 자료적 가치와 특성을 살피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문서연구를 통하여 많은 지역의 문화와 역사적 자료들이 챙겨지고, 그 성격들이 규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발제자가 보기에는 최근에 정착된 고문서 전문연구는 중앙중심적인 고문서 ‘형태’와 ‘유형’에 집중된 모습이 강하다. 지역문화와 역사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중앙중심적인 평가와 양식·형태 중심의 고문서연구는 매우 아쉽게 보여진다. 그리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고문서 조사와 연구가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고도 싶다.

고문서 조사와 연구에서 가장 기본은 ‘언제, 누가, 어떤 목적에서, 누구에게 준’ 문서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다. 장맛만 보아도 그 집의 문화를 알 수 있다고 했듯이 사람마다, 집집마다 각기 다른 특성과 내음이 있다. 지역의 문화도 그런 점에서 독특한 성격과 모습이 있는 것이다. 아마도 지역사나 지역문화가 지닌 그러한 성격과 모습을 ‘시대’와 ‘지역’, ‘주체’로 고문서에서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즉 고문서는 각 지역, 시기, 분야별로 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주고받은 생활사의 여실한 기록일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사회상과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1차 사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이에 주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때로 이러한 지역만을 중앙의 시각, 외지인의 시각에서 보고 폄하하고 왜곡하여 평가하는 경향도 적지 않게 보게 된다. 바로 이를 극복하여 지역민의 지역의 특성을 발굴하는 노력이 지역사

11) 고문서는 아니지만, 제주관련 문집 자료들도 지역학 자료로 주목된다. 1712년(숙종 38) 부터 1715년까지 제주관관으로 재임했던 남구명의 문집 『우암선생문집』에는 제주의 산천과 형승, 풍속과 신앙, 기후와 풍토, 육지와와의 교통로 등이 소개되어 있고, 1735년(영조 11)에 도입한 제주목사 김정의 문집 『노봉선생문집』에는 80여 수의 시, 39편의 문과 삼천서당 주변의 명소 제명(중장병·용린병·호반병·지주암 등) 등이 전한다. 1841년(헌종 7)부터 1843년까지 제주목사로 재임했던 이원조가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한 시문집 『탐라록』에는 제주순력, 문무시제, 한라산신제 및 풍우뇌우제 시행 등이 기록되어 있다. 다산 정약용의 제자인 이강희의 『탐라직방설』에는 제주도의 산천, 산물, 인구, 농업, 군사 등 지방통치와 관련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연구의 기본이라 할 것이다. 지역사와 지역문화란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어 형성시킨 “밀뿌리”이자, 어떤 의미에서 수백 년,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지역민들에 의하여 ‘점점’되고 ‘평가’받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생명력 있는 가치관이자 실질적 모습이었다. 그리하여 지역의 전통문화 가치는 이미 과거의 역사 경험 속에서 지역민들이 ‘동질성, 정체성, 특수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거나 특징을 부각시키지 않아서 그렇지 각 시대, 각 지역의 문화는 그것을 과연 어떠한 시각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치는 다르게 보이게 되어 있다. 나아가 이를 ‘가꾸고 다듬는’ 정성에 의해 본연의 가치가 되살아날 수도, 반대로 사장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시도하고 있는 ‘지역문화 연구정리’란 바로 이 같은 지역적 특성을 규명하고 종합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문화는 중앙중심의 지배문화나 고급문화가 강요하는 보편성과 달리 독자적인 개성(특질)을 지니고 있으며, 이 특수한 개성이 올바르게 이해될 때 지역문화는 본래의 가치가 재음미될 수 있다. 각 시대, 각 지역의 문화는 그 문화가 생겨나는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지닌다. 따라서 지역사는 그것을 과연 어떠한 시각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치 역시 매우 달라지게 마련이다. 지역사와 문화를 서울 중심의 지배문화, 중앙의 문화시각으로만 보면 지역의 특수한 문화배경과 사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지역사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들의 이해와 지원, 주변 여건들이 총합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단순히 나열하거나, 선입관과 편향적 인식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만다면, 이는 자칫 지역사의 실제 모습과 의미를 축소하고, 연구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왜 그러한 특성이 생기게 되었는가, 또 다른 점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다른가를 명확히 재고하는 것이 바로 지역문화 연구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문화에 의한 지역문화 평가를 반복시키기 위하여는 각 지역에 남아 전하는 전승자료를 지역민의 안목으로 충실히 정리·연구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우리가 별 것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지역의 독특한 관습이나 전승문화 속에는 지역만의 문화 특징들이 간직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의 특색을 설명할 이들 자료를 보존치 못할 경우 지역문화는 그 문화적 저급성을 반박할 근거를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런 상태 하에서 자긍심이나 자존심은 생겨날 수도 없으리라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지역 전통문화의 정체성과 자부심, 실체를 고문서를 통하여 얻고 그 가치를 바로 알아 전달하면 좋을 것이라 보고 싶다.

그리고 지역사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들의 이해와 지원, 주변 여건들이 총합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즉 상대적 계층성을 가진 문화 집단들이 상호 협조, 경쟁, 타협하면서 이루어낸 지역공동체의 산물이다. 크게 보면 지역사나 각 분야별 문화의 내용들은 이러한 각 계층과 집단들의 이해와 상충, 변화과정을 겪으면서 변화 발전하였다고 생각되고, 결국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지역사와 문화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역사와 문화전통을 지닌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관념과 연구 속에서 지역 특성차별성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¹²⁾

끝으로 지역문화 특성은 유형과 성격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특성과 흐름이 있다. 예컨대 [유형별]로 본다면 고고학 유적과 미술사 유적, 역사유적, 민속생활사 유적, 그런가하면 인물, 사상, 정신, 예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야가 있고, 이들은 [시대별]로 집중도도 다르다. 그런가 하면 [문화주체별]로도 이해의 시각과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예컨대 농민과 어민, 피지배 민중의 문화와 지배층 중심의 문화, 생활문화와 예술 문화, 불교·유교·무속문화, 중앙문화와 지역문화 등등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이들 다양한 문화유적들은 유적들마다 성격, 시대별 요점과 핵심이 있고, 바로 이들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를 ‘고문서’로 상징되는 지역만의 기록 자료로 뒷받침 받아 밝혀야 한다. 예를 들면 향교·서원·종가 같은 유교문화 유적이 단순한 건축물로 건축사적 구조와 특징, 용어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들의 건축물로서의 의미보다는 교육, 의례, 정치, 문화의 집회공간으로서 사람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종가 같은 경우도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종부의 삶이나 종가문서와 유물, 인물의 설화나 사상, 전설, 음식 등등 수없이 다양한 문화유산을 동시에 간직한 곳이다. 따라서 이는 생생한 생활문화 유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폭넓은 이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바로 그러한 점에서 고문서자료들이 생생한 자료이자 지역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음도 강조하여 본다.

12) 이해준, 「지역사의 제 모습과 그림자」, 『한국사 시민강좌』 27집, 일조각, 2000.

■ 1부 주제 발표

민간소장 고문서 조사·수집·연구 성과와 과제	25
--------------------------------	----

권진호(한국국학진흥원 국학기반본부장)

제주지역 자료의 조사·수집·연구 성과와 과제	39
--------------------------------	----

정수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문서연구실장)

제주학연구센터의 고문서 조사·수집 성과와 과제	53
---------------------------------	----

임승희(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제주고문서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제언	73
------------------------------	----

정제규(문화재청 전문위원)

민간소장 고문서 조사·수집·연구 성과와 과제

-한국국학진흥원 사례를 중심으로

권진호 (한국국학진흥원 국학기반본부장)

민간소장 고문서 조사·수집·연구 성과와 과제

-한국국학진흥원 사례를 중심으로

권진호

(한국국학진흥원 국학기반본부장)

1

목차

1. 한국국학진흥원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2. 민간소장 자료, 어떻게 조사하고 수집하는가
3. 수집된 자료는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는가
4. 수집된 자료는 어떻게 연구활용하고 있는가
5. 국학자료 수집과 연구, 추진성과는 무엇인가
7. 국학자료 수집과 연구, 향후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2

한국국학진흥원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한국국학진흥원은
1995년 '전통을 이어 미래를 여는 국학의 진흥'
이라는 비전 아래 국학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 현대적 활용을 목표로 설립된 이래 27여 년
동안 전통문화의 연구를 비롯하여 가치와 의미를
재해석하는 일에 매진해 오고 있다.

- * 멸실 위기에 있는 민간소장 국학자료의 수집 보존
- * 국학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 * 국학자료의 전산화 및 대중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 * 국학자료를 활용한 교육연수 및 전통문화의 보급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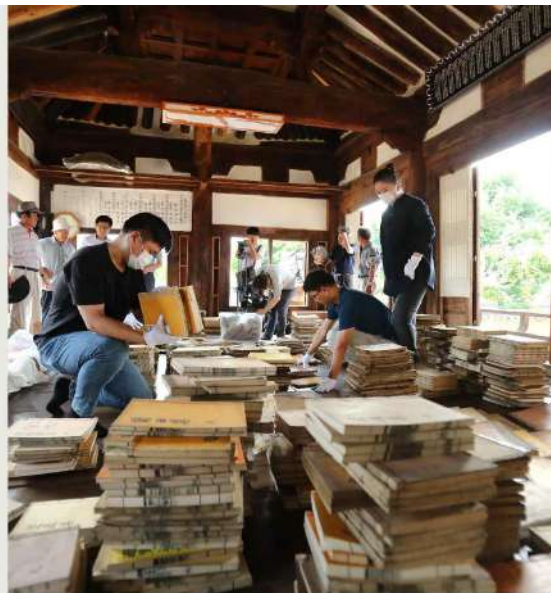
민간소장자료, 어떻게 조사하고 수집하는가?

자료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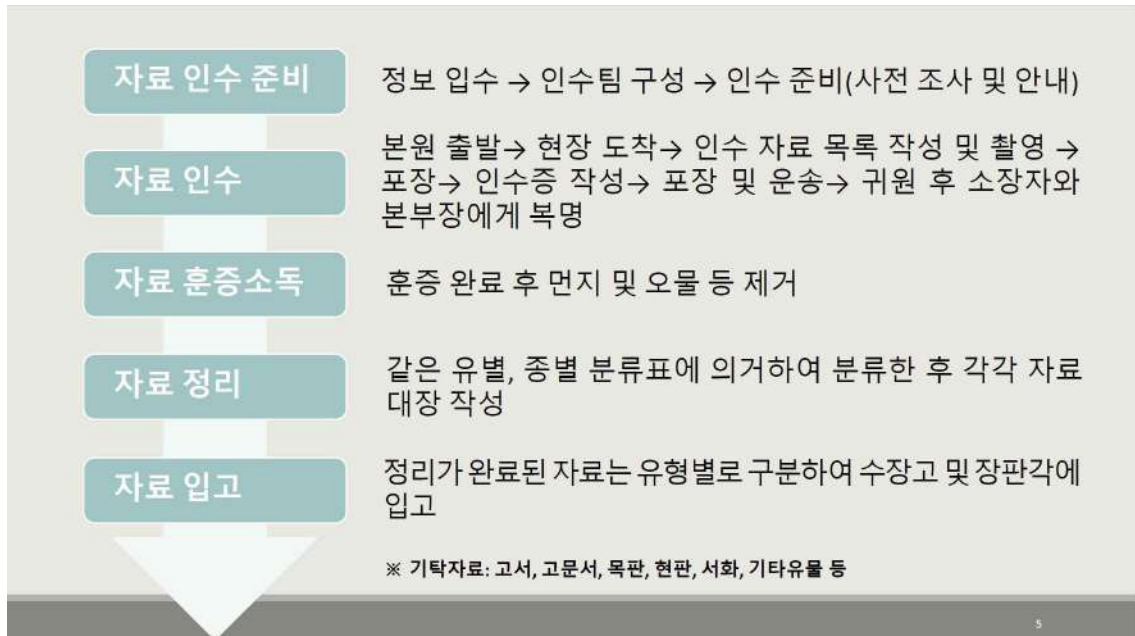


기탁(위탁)관리제도 도입

민간 소장 국학자료를 자연적 멸실과 인위
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장자
의 소유권을 보장하고 관리권만 위임 받는
'기탁'에 의한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보관
하고 활용하는 제도



4



5

수집된 자료는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는가?

최첨단 보관시설 수장고  ▶ 항온 항습기 연중 가동 ▶ 고감도 화재감지기	목판10만장 수장 장판각  ▶ 온·습도에 따른 자동 개폐 창문 ▶ 화재 감지기 가동	개방형 수장고 현판수장고  ▶ 항온 항습기 연중 가동 ▶ 세계기록유산전시체험관 상시관람
---	---	--

6

수집된 자료는
어떻게 연구활용하고 있는가?



- ▶ 국학자료 조사수집 및 정리 보존 사업
- ▶ 고전국역 및 국학자료 DB·콘텐츠 개발사업
- ▶ 한국형스토리테마파크 구축사업
- ▶ 국학연구 미래인재 양성 사업
- ▶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
- ▶ 국학분야 일자리 창출사업
- ▶ 전통 생활문화 집대성 및 콘텐츠 개발 사업
- ▶ 한국근현대 유학사상론 발간 사업
- ▶ 서화류 귀중본 도록 편찬 사업
- ▶ 국학분야 인공지능 자동 번역 시스템 구축 사업
- ▶ 훈민정음뿌리사업단
- ▶ 그 외 사업

7

국학자료 조사수집 및 정리 보존 사업

흩어져 있는 민간소장 국학자료의 체계적인 조사·수집을 통해 위기에 처한 기록자료를 미래세대에게 안전하게 전승

이 사업을 통해 본원의 정체성을 구축해 감은 물론, 1차적으로 가공된 국학자료를 전문가 및 일반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학 연구 활성화 및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과학적 보존 처리를 통해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학자료의 도난 또는 훼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함



8

고전국역 및 국학자료 DB·콘텐츠 개발사업

한문으로 된 국학자료를 먼저 탈초·번역하고, 이를 기반으로 DB·콘텐츠화 함으로써 접근하기 힘든 국학자료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

문집 번역 뿐만 아니라 미간행 필사본으로 남아있는 일기류 번역, 초서로 쓰여진 간찰 탈초 및 번역을 비롯하여 문집과 일기자료 DB(아카이브)구축, 세계기록유산인 유교책판과 한국의 편액 아카이브 구축



9

한국형스토리테마파크 구축사업

일기류 및 전통 기록 자료에서 필요한 소재를 추출하여(연간 600건) 창작의 원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서비스

전통의 기록자료에서 문화산업화를 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

전통문화자산의 활용성 증대와 문화산업의 기반 마련 등의 측면에서 각계로부터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정. 미래세대(대학생) 발굴을 위한 창작 콘텐츠 공모전과 일반인 대상 분야별 공모전 시행



10

국학연구 미래인재 양성 사업

한문교육원 운영은 한문으로 된 기록자료를 해독할 수 있는 특수 전문 인력을 양성.

목판으로 간행된 문집을 비롯하여 미간행 필사본인 일기 및 간찰자료를 다량 소장하고 있으나 해독하기 어려운 초서로 쓰여 있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움

문화융성 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 기록자료를 해독할 수 있는 특수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양성을 위해 2012년에 한문교육원을 설립.

대구 연수과정(3년, 20명), 안동 연구과정(2년, 5명)



11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

유아들에게 한국적 정서를 담고 있는 선현들의 미담을 들려줌으로써 미래세대 인성함양 및 세대간 민족문화의 전승에 기여

만 56세 이상의 할머니들을 지역에 따라 선발하여 1년간 교육을 시킨 후, 전국 유아원 및 유치원에 파견하여 아이들의 인성함양에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줌

현재 총 4,000명이 전국의 9,000여개 유아교육 기관에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문화 향유층 증대 및 노년 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에서 중요 사업으로 인정



12

국학분야 일자리 창출사업

청년일자리 창출사업과 실버일자리 창출사업

인문학 분야의 청년들에게 관련 분야 실무 경험과 자립기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10년간 200억을 투입하여 연간 120명이 국역 및 원문 입력, 소장자료 전수 촬영 및 해제 작업

체계적인 근대기록문화 조사를 통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서비스. 연간 20억을 투입하여 전국 500명의 근대 기록 문화조사원을 선발·양성 및 근대자료 조사·수집. 실버 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기여



13

전통 생활문화 집대성 및 콘텐츠 개발 사업

우리나라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사 자료를 집대성하여 다양한 전통 문화원형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 산업적 활용도 제고

선조들의 삶과 일상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오늘날 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생활사 관련 사업을 한국국학진흥원 60만여 점 민간 기록자료의 활용성 제고 측면에서 적극 추진

연간 4억이 투입되어 5년간 지속하는 사업으로 연간 20권 교양총서 발간



14

전통 생활문화 집대성 및 콘텐츠 개발 사업

우리나라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사 자료를 집대성하여 다양한 전통 문화원형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 산업적 활용도 제고

선조들의 삶과 일상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오늘날 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생활사 관련 사업을 한국국학진흥원 60만여 점 민간 기록자료의 활용성 제고 측면에서 적극 추진

연간 4억이 투입되어 5년간 지속하는 사업으로 연간 20권 교양총서 발간



14

한국근현대유학사상론 발간 사업

연구기능 활성화를 통해 국학연구 기간으로서 위상 정립과 기관을 대표하는 중대형 국학연구 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을 위한 사업. 5년간의 사업으로 총 10책 발간 계획

기관 30년사를 대비하는 연구 성과 도출

유학사상대계 12권 시리즈 간행한 경험이 있음



15

서화류 귀증본 도록 편찬 사업

본원 소장 서화류 중 유목첩 및 서체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들을 영인·간행하여 보급함으로써 국내외 국학 연구 발전의 토대 제공

본원 소장 필첩을 조사하고 상세한 목록화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기탁자료의 가치를 발굴하고 공유하여 기관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 (총 100권 간행 예정)



16

국학분야 인공지능 자동 번역 시스템 구축 사업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형 고전국역 프로젝트사업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전국역 시스템 개발 사업. 10년간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

훈민정음뿌리사업단

한글을 지켜오고 보존해 온 경상북도(안동)의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신한류 시대를 선도할 새로운 문화산업 콘텐츠로서 한글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발굴

경북도의 다양한 한글자료의 전수조사·정리를 통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한글문화의 활성화 및 산업화에 기여

17

그 외 기타 사업

본원 소장 자료의 학술적 가치를 알리고 연구 성과를 해외에 제공함으로써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국제 학술지 발간 사업**

종가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발굴하여 우수한 우리 문화의 산업화에 세계화에 활용함으로써 국격國格을 제고하기 위한 **대한민국 종가문화 대전**

이들 사업은 그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사업을 수립하고, 중국에는 지역의 문화 산업화에 기여 또는 문화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그 초점이 놓여있음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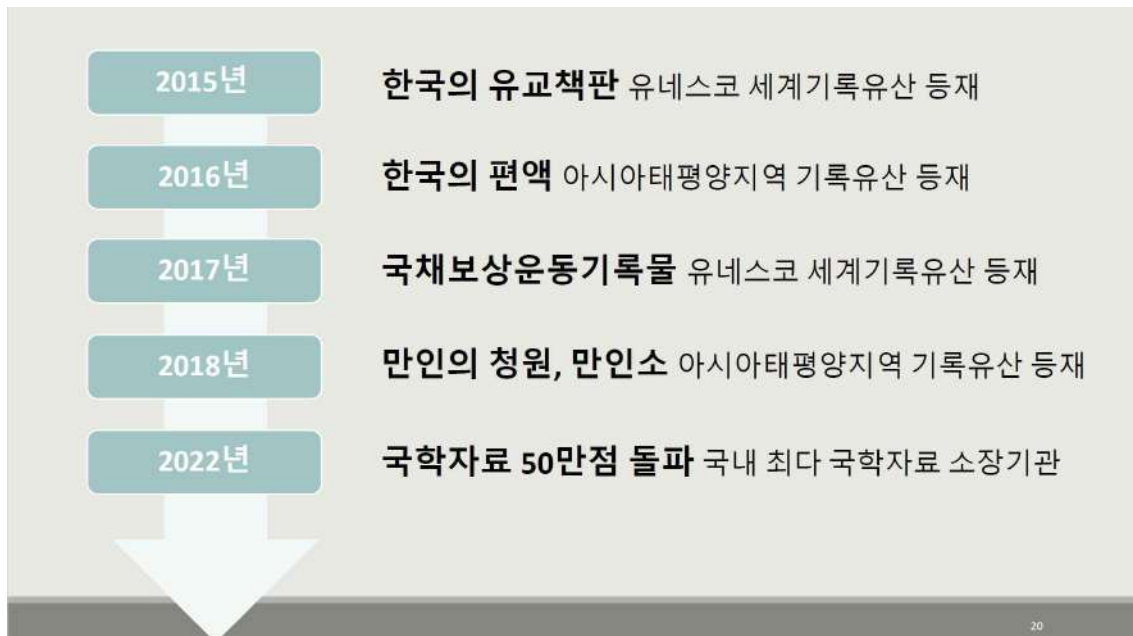
국학자료 수집과 연구, 추진 성과는 무엇인가?

한국국학진흥원은 개원한지 27년 동안
 괄목한만한 업적 및 성과를 거둠

2022년 9월 1일자 기준
 전국 1,176개 문중 총 605, 581점의 국학자료를
 기탁받아 안전하게 보존 및 연구 활용



19



20

국학자료 및 문화재 소장 현황	계	고서	고문서	목판	현판	서화	기타
	605,581	186,188	341,520	66,656	1,362	5,686	4,069

국학자료 총 605,581점 기탁자 1,167개 문중 지정문화재 67건 70731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지역 기록유산	국보	보물	국가등록 문화재	지방유형 문화재 등
	<유교책판> 64,226점	<한국의 편액> 550점				
	2015. 10. 10	2016. 5. 18				
	<국채보상운동기록물 > 52점	<만인의 청원, 만인소> 1점	징비록 1건 1점	20건 1,855점	1건 691점	41건 3,355점
	2017. 10. 30	2018. 5. 30				

21

관련 지자체의 역사유산 발굴 및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 지자체의 역사유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정리 및 집대성

경북지역의 구국팔경, 읍성, 서원(향교), 누정, 사찰, 암각화(비문), 충효열
정려각(문) 등 중요 유산에 대한 발굴 및 조사 정리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연구하여 도서 간행, 영상 제작, 디지털 아카이브 및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과 서비스

개발된 콘텐츠를 기반하여 전시, 현장 답사, 연수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용
과 관광자원화의 계기 마련

24

국학자료 기탁자 예우제도 강화

기탁된 고서, 고문서의 탈초 및 번역사업 강화

기탁된 자료의 문화재 지정 신청에 역량 집중

비지정 문화재 보존 관리

민간 기록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목록 발굴

25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옛 것을 연역하여 새로운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공자, 『논어』 「위정」 편

26

500년간 조선시대의 지배 이념이었던 유학적 전통은

낡은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이다.

낡은 것에서는 새로운 힘이 나오지 않지만

오래된 전통 속에는 많은 경험과 지혜의 축적이 담겨져 있다.

경험과 지혜의 축적이 녹아 있는 유학적 전통에는

21세기 당면한 문제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인문적 가치가 내재해 있다.

그것이 바로 **인문학의 힘**이다.

27

제주지역 자료의 조사·수집·연구 성과와 과제

정 수 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문서연구실장)

제6회 제주학대회

제주지역 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성과와 과제

정수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고문서연구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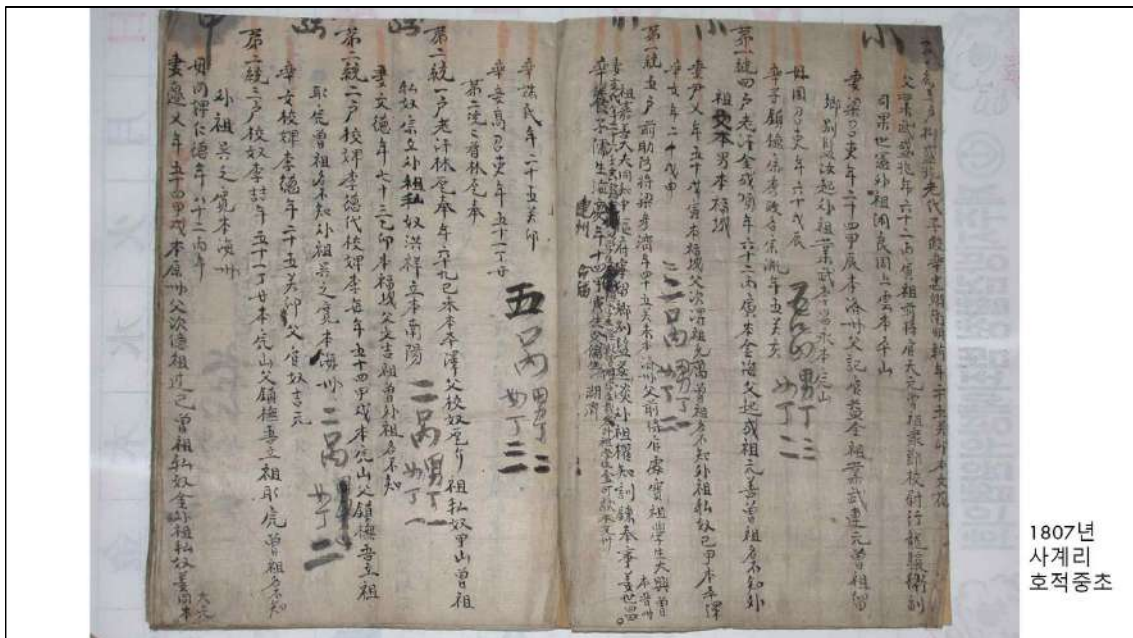
목차

1. 제주호적과 신분, 가족
2. 토지소유와 매매
3. 자료수집과 연구 성과
4. 제주마을 연구 과제

2022-10-01

프레젠테이션 제목

2



1. 제주호적과 신분,가족

-대상자료: 19세기 <<제주대정현사계리호적중초>> 연구

-사계리 호적 등장하는 대표적인 직역들

校生, 都訓長, 廟生, 儒生, 幼學, 掌議, 靑衿, 鄉解, 都正, 哨官, 助防將, 五衛將, 假率, 將

官, 千摠, 把摠, 平役軍官, 旗牌, 業武, 鎭撫, 募軍, 防軍, 束伍, 牙兵, 石匠, 紙匠, 畚漢, 牧

子, 群頭, 軍器直, 使令, 書員, 校奴, 官奴 등

2022-10-01

5

1. 제주호적과 신분,가족

-대상자료: 19세기 <<제주대정현사계리호적중초>> 연구

-사계리 호적 등장하는 대표적인 직역들

校生, 都訓長, 廟生, 儒生, 幼學, 掌議, 靑衿, 鄉解, 都正, 哨官, 助防將, 五衛將, 假率, 將

官, 千摠, 把摠, 平役軍官, 旗牌, 業武, 鎭撫, 募軍, 防軍, 束伍, 牙兵, 石匠, 紙匠, 畚漢, 牧

子, 群頭, 軍器直, 使令, 書員, 校奴, 官奴 등

2022-10-01

5

-제주지역 관련 사료: 탐라순력도, 남한박물, 탐라록, 탐라장계초(이상 이형상), 탐라록, 탐라지초본, 탐라관보록, 탐라계록(이상 이원조)

-제주 읍지의 가솔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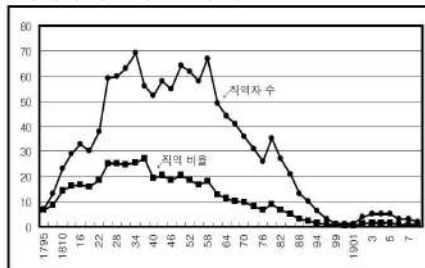
자료명	가솔현황	비고
제주대정정의읍지	124人(90人 牧使, 34人 判官 所屬)	
탐라사례	가솔(31) 排番假率(108), 除番假率(3,090)	明月鎮條 班額條
탐라지초본	假率(108人)	
탐라영사례	假率(31) 배번가솔(240), 전임가솔(222), 제번가솔(3,077)	明月鎮條 班額條

- 호적중초: 가솔과 관련한 직역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호적상의 가솔의 종류는 營假率, 陸人假率, 假率閑良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의 성격은 가솔로 통칭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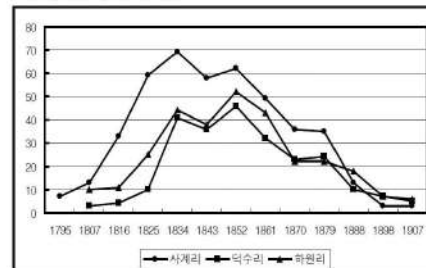
2022-10-01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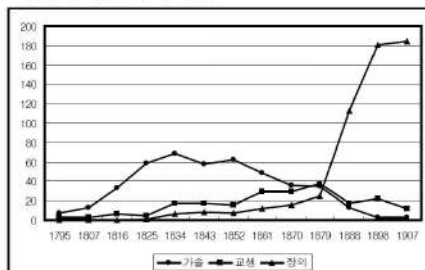
사계리 가솔의 분포추이



마을별 가솔의 분포



가솔과 양반직역 증감



연령별 가솔 분포

연도	1-19세		19-39세		40-59세		60이상		총계
	분포	비율(%)	분포	비율(%)	분포	비율(%)	분포	비율(%)	
1795년	2	28.6	5	71.4	0	0	0	0	100
1807년	9	69.2	4	30.8	0	0	0	0	100
1816년	24	72.7	9	27.3	0	0	0	0	100
1825년	30	50.8	29	47.5	1	1.7	0	0	100
1834년	33	47.8	35	50.7	1	1.5	0	0	100
1842년	24	41.4	33	55.9	1	1.7	0	0	100
1852년	34	54.8	27	43.8	1	1.6	0	0	100
1861년	34	68.4	15	30.8	0	0	0	0	100
1870년	17	47.2	19	52.8	0	0	0	0	100
1875년	17	48.6	18	51.4	0	0	0	0	100
1888년	6	46.2	6	46.2	1	7.6	0	0	100
1898년	1	33.3	1	33.3	1	33.3	0	0	100
1907년	0	0	3	100.0	0	0	0	0	100
총계	231	52.5	203	46.1	6	1.4	440	100	

프레젠테이션 재발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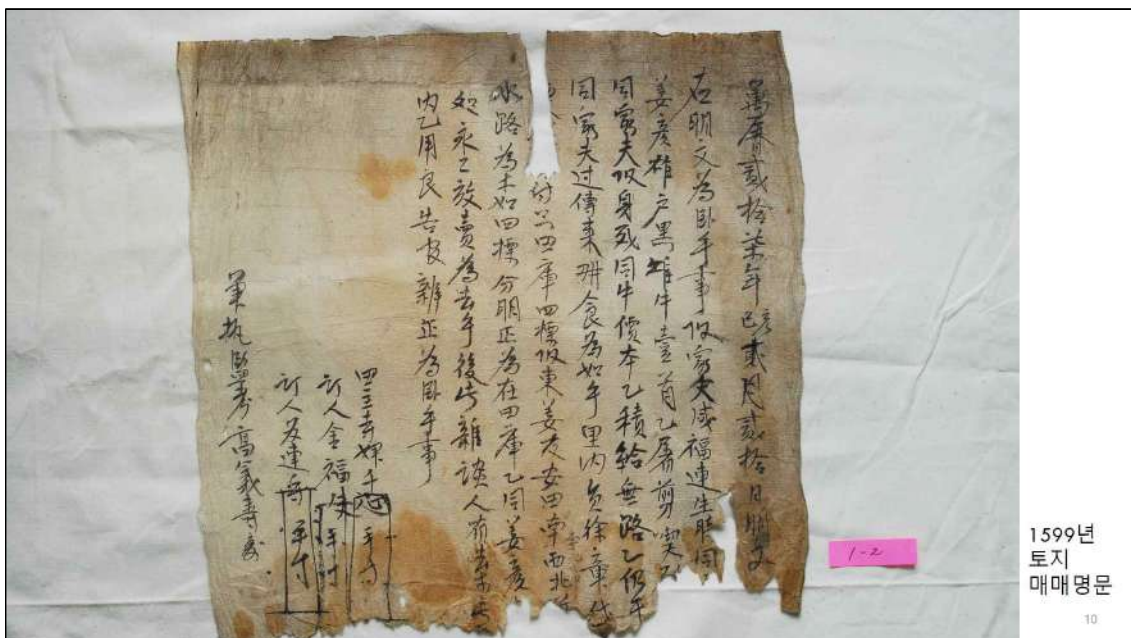
·각계기록 별 가솔 직역자의 분포와 직역 변동 장기 추이 추적

- 제주가솔: 제주지역의 가솔은 대체로 연령이 낮게 분포하고 있으면서 千摠, 把摠, 城將, 將官 등의 군관직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가솔 직역자의 분포는 1825-61년에 걸쳐 높은 비율, 1861년 이후는 하강세였다. 19세기 가솔직역이 군관으로서 상층 중인의 신분이며, 신분 변화의 계제가 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동일 직역 내에서 혼인이 이루어 지고 가솔직역자의 군관직역 그리고 이후 교생, 장의로 이동하는 등의 흐름이 있다.

- 제주지역 호적중초와 관찬사료 등을 이용한 직역의 특수성 확인과 연구. 호적대장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추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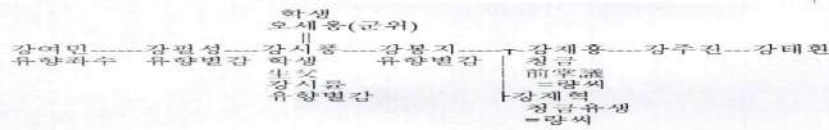
2022-10-01

9



2. 토지소유와 매매

·대상가문: 어도 진주강씨 소장 고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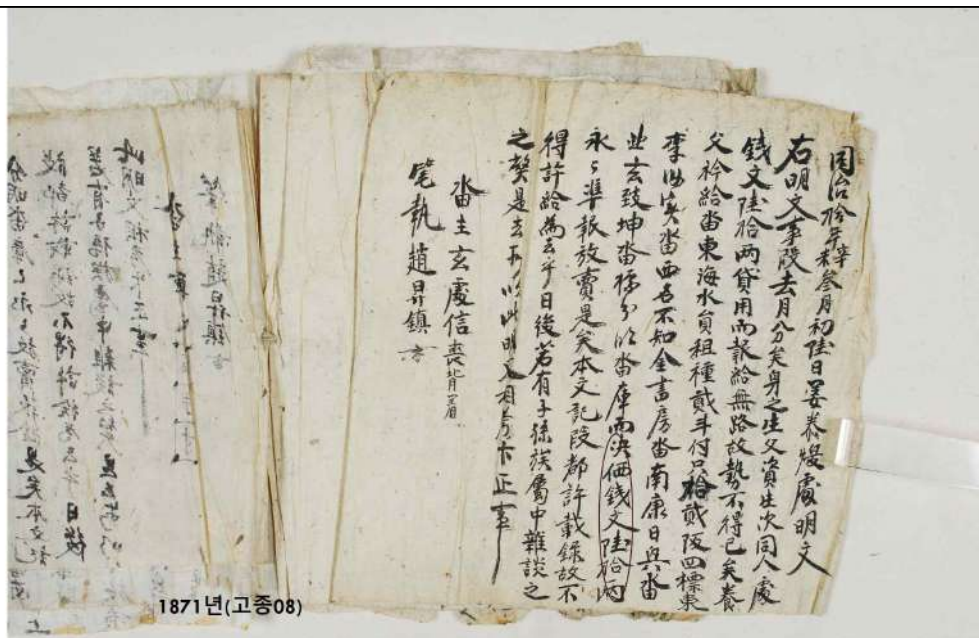
*남환박물(이형상), 탐라록, 탐라지초본(이원조)

·제주토 토지매매수단

구분	포목	우바	머리	목합	기타	합
계	33	28	21	19	5	106

2022-10-01

11



-분묘와 전답확보: 소지와 입지

“六所場 아래 月角 거기에는 주인 없이 加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땅에 이미 3개의 분묘가 있으나 耕食할 餘地가 없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몸이 養護하여 대개 牛馬가 들어와 침입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앞에 文仁道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入畊하니 이 所志를 올립니다. 그러하니 저의 몸이 護養한 여부를 실제로 조사한 다음 嚴禁하는 得決을 했습니다. 그런데 高永發이 함부로 入畊 할 뜻을 꾸미니 島規에 의거하여 禁斷 이후에...”(1754년(영조 30)년에 於島 內山里에 거주하는 前縣監 姜汝興이 濟州牧判官에게 올린 소지)+입지: 목장과 분묘, 금양.

-전답분쟁과 동증: 소지, 첩정, 서목, 퇴송기 등

“洞中앞으로 하는 退訟記. 이 퇴송기를 합니다. 이 몸이 다만 보잘 것 업는 寡婦가 되어 시숙의 생시 衿給田을 다른 사람에게 轉賣한 요점을 알지 못한 뒤에 禁爭은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買田한 사람이 관에 정소하여 제사를 받아서 論報하는 지경에 이르러 이 몸이 다시 생각하니 媳叔이 衿給하지 않은 田을 이제 爭禁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다.”(1872년 고종 9)

2022-10-01

13



1789년(정조13)

-토지매매와 4표(산담 ?)

“땅에는 亂石이 많다 산과 평지를 말할 것 없이 돌이 많고 흙이 적다. (중략) 밭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분묘를 만드는 자는 반드시 돌을 모아 담을 쌓아서 우마의 출입을 막았다. 『東文鑑』에 “백성들의 농토는 예전에 경계가 없어서 강하고 사나운 집안에서 날마다 잠식해 들어 가므로 백성들이 이를 어렵게 여겼다. 金垵가 판관이 되었을 때 백성들로 하여금 담을 쌓아 경계를 만들게 하였다.”고 하였다.”

(이원조, 탐라지초본)

“1670년(현종 11) 계해년 6월 초4일 奴 明日에게 하는 명문이다. 이 명문을 한다.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祖上傳來 경식하던 동래의 남쪽에 있는 於玉只員에 있는 皮牟 10두부지 밭으로 사표가 동으로 梁南의 노 丁立 밭, 서로는 奴 記連, 북은 金汝海의 밭, 家基 등으로 분명히 정한 밭이다. 값은 4필로 계산해 받은 뒤 이 사람에게 영영 방해한다.”

2022-10-01

15

한국고문서자료관

디렉토리분류
집성책분류
특화콘텐츠
부가서비스
사전서비스
소장처정보

상세검색
용례·인물검색

고문서집성

127책으로 구성된 고문서 모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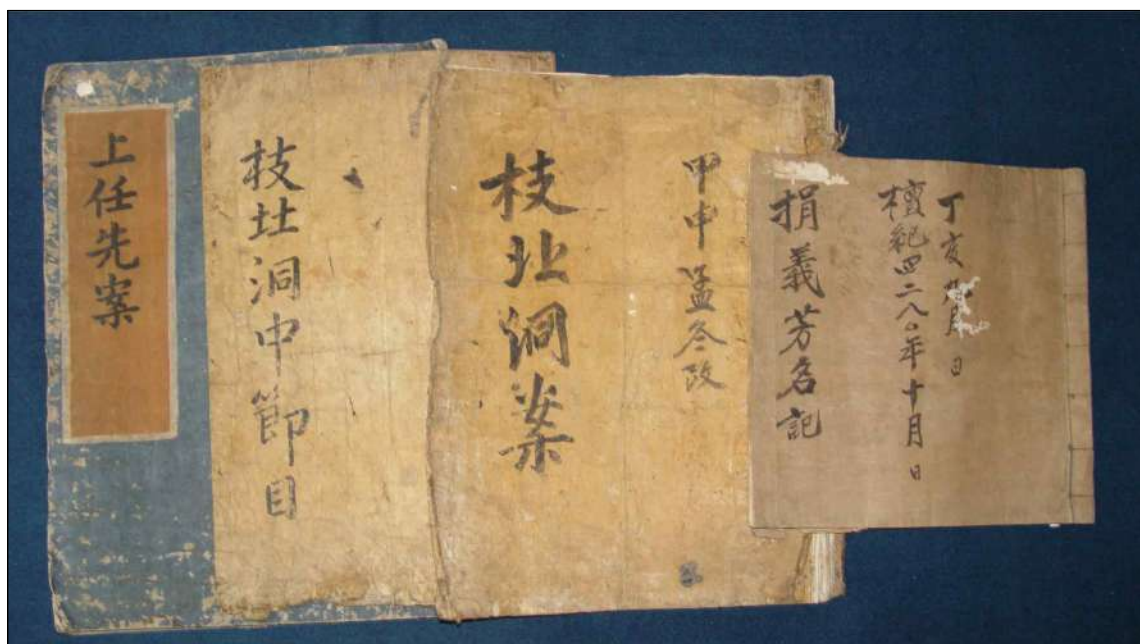
81책 영안 두옹 손흥안씨편 82책 영해 도국 무안박씨 무의공 증가판(Ⅰ) 83책 대전 화덕 온진승씨 등준당 후손가판(Ⅰ) 84책 함양 남계서원편(24책 정서본) 85책 대전 무수동 안동권씨 유취당 증가판 86책 서산 대교 경주김씨편 87책 산청 덕현서원편(25책 정서본) 88책 상주 우산 진주정씨 우복 증가판 89책 아산 선교 장흥임씨편 90책 영해 도국 무안박씨 무의공 증가판(Ⅱ)	91책 거창 거창영교편(25책 정서본) 92책 칠곡 석전 광주이씨편(Ⅰ) 93책 상주 영국 벽진이씨 완석정 증가판 94책 영해 연암 재영이씨 중효당편(Ⅱ) 95책 고창·고부 경산김씨편 96책 영령 영석 영철신씨편 Ⅰ (27책 정서본) 97책 군포 속달 동래정씨 장난중 증가판 98책 남원 안터 손흥안씨 사재당 증가판 99책 영해 도국 무안박씨 중효당편 100책 김천 직지사·해천 용문사편	101책 고창 용덕 평해황씨 황윤식 증가 고문서 102책 고창 용덕 평해황씨 고문서(101책 정서본) 103책 상주 연안이씨 이원부 증가 고문서 104책 영광 외간 연안김씨 고문서Ⅰ 105책 공주 안동김씨 김상헌·진주류씨 유충절 후... 106책 대전 화덕 온진승씨 등준당 후손가 고문서Ⅱ 107책 영령 영철신씨 고문서Ⅱ(28책 정서본) 108책 제주 예월 수산라중영리·작가리 고문서 109책 고령 가곡 선산김씨 김종직 증가 고문서 110책 제주 어도 진주김씨·조천 김해김씨·구좌 등...	111책 의정부 장암 반남박씨 박세당·석동량 가문... 112책 함천 용연서원 고문서Ⅰ (29책 정서본) 113책 봉화 유곡 안동권씨 권별 증가 고문서 114책 제주 진주강씨·국산강씨·김해김씨·경주김... 115책 상주 영안 광주박씨 박동형 증가 고문서 116책 함천 용연서원 고문서Ⅱ(30책 정서본) 117책 함천 함현황교 고문서(31책 정서본) 118책 경주 영동 경주손씨 고문서(32책 정서본) 119책 함양 안의 밀양박씨 박명부 증가 고문서 120책 안성 보채 동래김씨 정종순 증가 고문서
--	--	---	---

< > 3 / 4



3. 자료수집과 연구성과

- 고문서집성 108
=제주 애월 수산리, 중엄리, 하가리 고문서
- 고문서집성 110
=제주 어도 진주강씨, 조천 김해김씨, 구좌 동래정씨 고문서
- 고문서집성 114
=제주 진주강씨, 곡산강씨, 김해김씨, 경주김씨, 제주고씨, 동래정씨 고문서



4. 제주마을 연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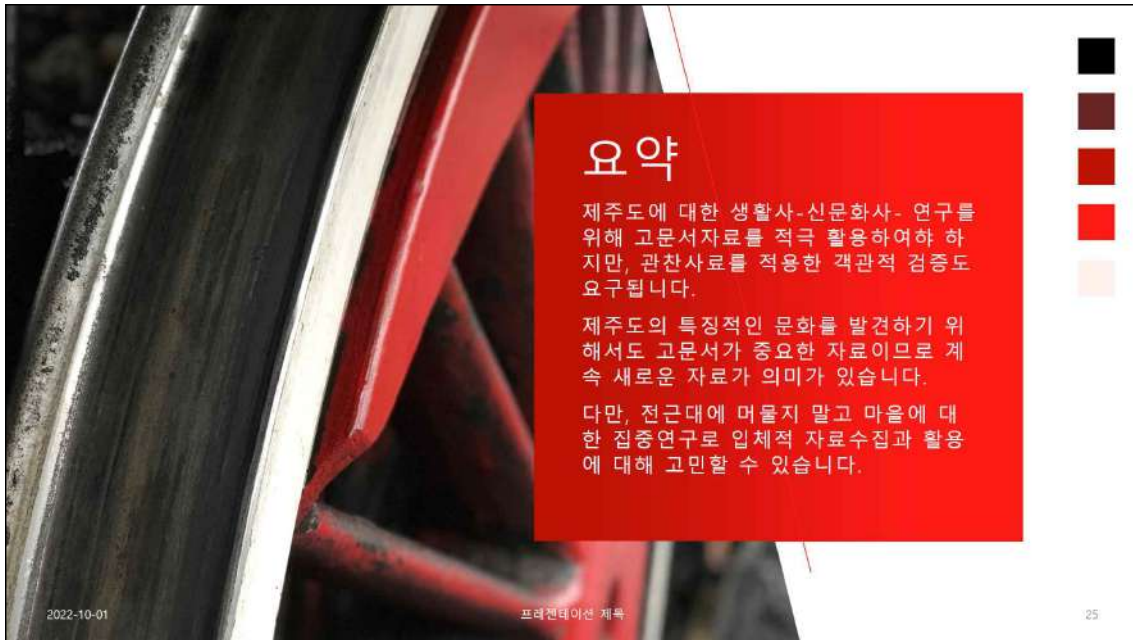
202 [그림 1] 수산리의 고문서 보관모습(紙筒과 고문서, 左)과 인수인계서(1872년 「紙筒交代記」, 右)

21



[그림 1] 수산리의 고문서 보관모습(紙筒과 고문서, 左)과 인수인계서(1872년 「紙筒交代記」, 右)







요약

제주도에 대한 생활사-신문화사-연구를 위해 고문서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하 하지만, 관한사료를 적용한 객관적 검증도 요구됩니다.

제주도의 특징적인 문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도 고문서가 중요한 자료이므로 계속 새로운 자료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전근대에 머물지 말고 마을에 대한 집중연구로 입체적 자료수집과 활용에 대해 고민할 수 있습니다.

2022-10-01

프레젠테이션 제목

25



감사합니다.

정수환

swan@aks.ac.kr

제주학연구센터의 고문서 조사·수집 성과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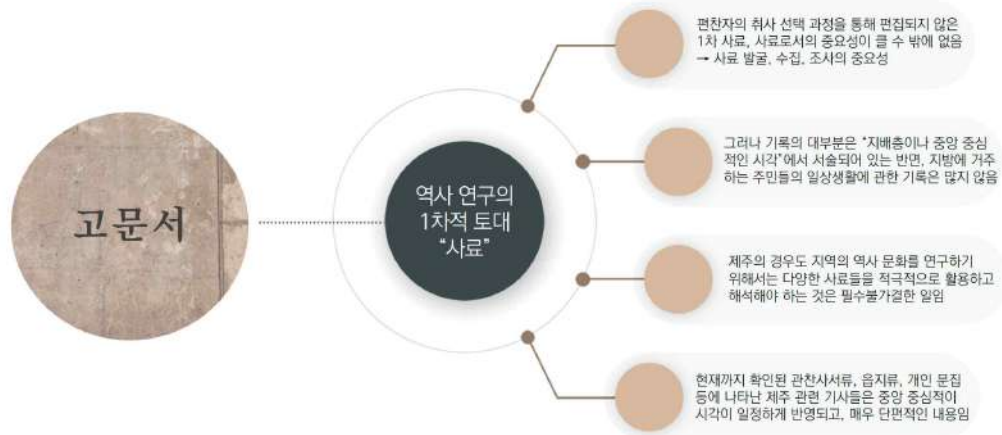
임 승 희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의 고문서 조사·수집 성과와 과제

CONTENTS

- 光緒廿九年三月十五日
父曾生
母陳氏
祖考曾公
祖妣曾夫人
父曾生
母陳氏
祖考曾公
祖妣曾夫人
- 行樂圖
- 光緒廿九年三月十五日

54_제6회 제주학대회 학술대회 자료집



“가치 있는 고문서”의 재발굴

제주학연구센터가 앞으로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각 마을과 문중,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가치 있는 역사문화자원(고문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집·정리, 조사·연구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묻고자 한다.



관찬 사서류

•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관찬 읍지류

•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사찬 읍지류

• 《탐라지》, 《남원백물》, 《중보탐라지》, 《제주읍지》, 《탐라지초본》, 《제주대정정의읍지》 등

개인 문집류

• 《제주풍토록》, 《남원소승》, 《남사록》, 《제주풍토기》, 《지명록》, 《탐라문헌록》, 《탐라록》, 《속음청사》 등

기타 고문헌

• 《탐라장계초》, 《탐라계록》, 《보초등록》, 《대정군군병도안》, 《탐라방영총람》, 《금제산생년》 등의 장계 및 서계첩, 군사 전적류, 병록류 자료 등

1990년대

1967년, 제주도문재연구소 창립

1976년, 탐라문화연구소(현 탐라문화연구원)로 개칭

- 〈탐라문화〉, 〈탐라문화총서〉, 〈탐라문화학술총서〉 간행
- 〈제주 대정현 덕수리 호적증초(1~4, 1993)〉, 〈제주 대정현 사계리 호적증초(1~6, 1998)〉, 〈제주 대정현 하모슬리 호적증초(1~5, 2000)〉 발간
- 〈탐라지초본(이원조 저, 1989)〉, 〈탐라지(남만리 편, 1989)〉, 〈탐라지(이원전 저, 1991)〉, 〈제주속오군적부(2001)〉, 〈제주도고문서연구(고창석, 2002)〉 등

1990년, 제주도사연구회 발족

- 1991년, 〈제주도사연구〉 창간호 간행
- 〈제주구백절목(조선후기)〉, 〈남영소송〉, 〈탐라영사례〉 등의 사료 소개

1990년대 전후, 연구자들에 의해 제주 지역 고문서가 소개됨

- 고창석, 김동천 등에 의해 제주 지역 고문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 당시 학계에 알려진 고문서는, 〈제주 고씨 고재일가 소장문서(호구단자, 훈호구, 전당문기 등)〉, 〈사계리 농성 구씨가 소장 문서(교전 및 고지, 호구단자, 전당문기 등)〉, 〈경주김씨 김만일가 소장 문서(전당문기류, 위주)〉, 〈장전리 진주강씨 강태복가 소장 문서(전당문기, 호구단자, 훈호구 등)〉 등이 있음

2000년대
~
2010년대

1995년, 제주문화원 창립

- 지속적인 향토사료의 발굴 및 역주 발간 사업 추진
- 〈속음참새(김윤식 저, 1996)〉, 〈지영록(이익태 저, 1997)〉, 〈남사일록(이증 저, 2001)〉, 〈역주 증보 탐라지(엄수계 편, 2005)〉, 〈남사록(김상현 저, 2008~2009)〉, 탐라기년(김석익 저, 2008) 〈탐라록(이원조 저, 2016~2018)〉, 〈역주 지영록(이익태, 2019)〉, 〈제주읍지(2020)〉, 〈역주 대정현이증일기(2022)〉 등 발간
- 제주도 금석문 조사 사업 추진, 〈제주도금석문집 1~4, 2018~2022)〉 발간
- 2007년, 제주문화원(전신 북제주문화원)에서 〈하가리 소장 고문서(서책류, 절목류 등 영인)〉 발간

1995년, 제주교육박물관 개관

- 1996년, 〈호열록〉 발간
- 꾸준히 제주 역사 관련 자료 역주 및 문집류 등 발간 사업 추진
- 〈노준선생문집(이익동, 2006)〉, 〈국역 우암선생문집(남구명, 2010)〉, 〈역해 효열록·대정군군령도안·보초등록(2010)〉, 〈제주의 고문서(2012)〉, 〈역해 탐라빈홍록(2013)〉, 〈역해 탐라계록·제주록관첩(이원조, 2017)〉 등 발간

1984년, 제주 우당도서관 개관

- 주로 일제시대 일본인 및 기타 외국인들에 제주에 관해 기술한 자료를 수집·번역 추진
- 〈(서양인들이 남긴) 제주도 항해탐사기(1787~1936, 2014)〉, 〈구한말 불어 영어 문헌 속 제주도(1893~1913, 2015)〉, 〈조선의 보고 제주도안내(1998)〉 등 발간



2020년
전후

1984년,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개관

- 2010년대 들어오며, 박물관 전시, 교육 외에도 다양한 학술조사 연구 활동을 함께 진행. 제주 지역 내 4개 국공립박물관 공동학술조사 추진,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등 발간
- 특히 2009년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공동으로 박물관 소장 고문서 및 제주 지역 고문서 조사 수집 작업 완료
- 2017년부터 꾸준히 소장 자료에 대한 역사자료총서 자료집을 발간해오고 있음 (이형상 제주목사 관련 편집 모음집(1-3, 2017-2019)), 《탐라록(이형상 저, 2020)》, 《탐라장계초(이형상 저, 2021)》, 《남한박물(이형상 저, 2022)》



2001년, 국립제주박물관 개관

- 개관 이래 유물·유적 및 기증 자료를 활용한 전시 뿐만 아니라 관련 도록, 학술총서 발간 수행
- 특히 2018년 보물로 지정된 <지영록(이익태 지)>에 대한 번역, 감수 작업을 진행하여 첫 고전총서로 발간

1967년, 제주대학교 박물관 개관

- 소장 유물 중 고문서를 대상으로 도록 발간 추진
- <고문서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애환(2019)>, <제주 옛 문서의 빛장을 엮다(2010)>, <고문서집성(2002)> 등 발간



그 외,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1997년 조직(한시적인 협의체)

- 1990년대 이후 제주도 정립사업 추진
- 유물도록 (탐라, 역사와 문화(1998)), <비변시등록 제주관계기사(1999)> (제주사연표(1-3, 2006)) 등 발간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 제주도: <조선총독부 관보 중 제주목(1995)> 등
- 제주시: <일린 제주시(2014. 4. - 현재, 고창석 지)>
- 서귀포시: <제주개력(1995)>, <서귀포시문헌자료집(1998)>, <서귀포 일명마을 고문서 자료집(2020)> 등 발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제주하권리호적증초(1-3, 1992)> 발간
- 제주 관련 <제주삼읍상전목회계성책(1853)>, <저라구페절목(1872)> 등 절목, 성책 고문서 다수 소장



- 1980년대 이후 각 지역에서 고문서를 활용한 지역사 복원 작업이 본격화됨. 예) '제주도 전적류증합조사'(1983)
- 제주지역의 경우 1990년대 부터 본격적인 고문서의 수집 및 정리, 조사 연구가 이루어짐.

- 제주지역의 고문서 및 고문헌의 가치를 발굴하고, 수집·조사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관련 전공 연구자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향토사학자 등 제주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함께 일궈낸 작업의 결과물임.

호남권한국학 자료센터 구축사업 추진 -제주대학교

- 제주대학교, 전북대학교, 조선대학교, 목포대학교가 컨소시엄을 조직, 수행
- 제주와 호남지역 지역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고문서 및 고문헌 등 한국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DB 구축
- 제주의 경우, 대포리 안성리 호적중초 및 문중 고문서를 중심으로 DB 구축

2008~2017년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구축사업(3단계, 10년) 추진(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 집성> 시리즈 발간

2014년 4월

《고문서집성》108책
-제주 애월수선리·중암리 하가리고문서

제주시 애월읍 소재 수선리(24점), 중암리(57점), 하가리(35점) 마을 소장 문서 총 116점 소개



2014년 11월

《고문서집성》110책
-제주 어도진주강씨·조천김해김씨·구좌동래정씨 고문서

조선시대 제주에 입도해서 세거한 각 문중 고문서 중심으로 총 697점 소개



2015년 9월

《고문서집성》114책
-제주 진주강씨·곡산강씨·김해김씨·경주김씨·제주고씨·동래정씨 고문서

제주도내 주요 후손 집안에서 소장한 고문서류 총 837점(총 9개 가문) 소개



국가기록원 기록사랑마을 지정

2010년

-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제3호 기록사랑마을' 지정, <대정현 안성리 호적중초> 보유
- 2011년, 서귀포문화원<우리고장의 기록문화유산> 발간: 안성리 소장 고문서 및 고서 소개



제주학연구센터 '고문서 조사 해제 발간 사업' 추진

“가치 있는 고문서”

제주 지역에 산재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고문서 자료의 체계적인 발굴과 정리, 해제, 연구 작업을 통해 제주 지역의 역사문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01

제주 관련 관찬자료 번역 편찬
-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02

제주 역사문화 자료 발굴 및 번역 편찬
- 제주 고문서 조사 해제 발간
-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 번역
- 일본 소재 신문 자료 번역(프란제문고)

03

제주 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연구
- 제주 유배 문화 자원 조사
- 제주 호적중초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 일본 소재 신문 자료 번역(프란제문고)

04

제주 역사문화 대중화 사업
- 제주 고전 강독회
- 팀라사 및 고문서 관련 학술대회 등

제주학 총서

2012

제주학 총서(4)
• 〈제주개략〉 / 고창석 외

2013

제주학 총서(6)·(8)
• 〈제주동사〉 / 김복옥
• 〈탐라사의 재해석〉 / 전경수 외

2014

제주학 총서(14)
• 〈탐라순역도 탐박〉 / 오창명 외

2017

제주학 총서(27)
• 〈제주학개론〉 / 제주학연구센터

2019

제주학 총서(42)
• 〈제주도개세〉 /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역사 자료총서

내용

총서 번호	자료명	발간일
01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 - 동아일보	2016. 12.
02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 - 일본어신문	2016. 12.
03	승정원일기 제주기사(Ⅰ) - 효종대	2017. 6.
04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 - 조선일보	2017. 12.
05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 - 시대일보 외	2017. 12.
06	승정원일기 제주기사(Ⅱ) - 원종대	2018. 8.
07	제주 고문서(Ⅰ) - 제주 삼향리 양씨가 고문서	2018. 12.
08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 - 매일신보	2019. 9.
09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 - 부산일보	2019. 9.

2017년부터 〈제주역사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역사 자료총서를 발간하기 시작함

제주역사 자료총서

내용

총서 번호	자료명	발간일
10	승정원일기 제주기사(Ⅲ) - 숙종대(상) (8)	2019. 12.
11	프린계문고 제주기사 자료집 - 재일조선인 미디어(Ⅰ)	2019. 12.
12	제주 고문서(Ⅱ) - 제주 도두리	2019. 12.
13	해녀박물관 소장 자료 번역집	2019. 12.
14	프린계문고 제주기사 자료집 - 재일조선인 미디어(Ⅱ)	2020. 12.
15	승정원일기 제주기사(Ⅳ) - 경종·영조대(1)	2020. 12.
16	유배문화 자원 조사 보고서	2020. 12.
17	유배문화 자원 조사 사업 자료집 - 유배사	2020. 12.
18	유배문화 자원 조사 사업 자료집 - 유배사 문학	2020. 12.
19	제주 고문서(Ⅲ) - 제주 삼여리	2020. 12.
20	제주도현황일만	2021. 12.
21	제주 고문서(Ⅳ) - 제주 조천 김해감씨 김희정 일가	2021. 12.



고문서 조사 해제 발간 사업

- ☐ 자료 소장처(소장자) 확인
- ☐ 자료 분류, 정리 작업
- ☐ 자료 목록화 작업
- ☐ 자료 해제, 탈초 및 번역 작업
- ☐ 주석 및 논고 작성, 자료집 발간

2018년

서귀포시 상항리 양씨가 고문서
-제주 안덕면 삼정리에 세거한 제주 양씨
집안 고문서

차정류(4점), 호적류(18점), 명문류(66점),
여절 등 기타 문서(6점), 총 94점 수록



2019년

제주시 도두리 마을 고문서
-제주 도두리 마을의 절목류 소개
(탐라도서관 소장)

도두리 마을 단위로 조직된 절계의 실상을 확인
할 수 있는 성책 고문서류, 총 9책(156면) 수록



2020년

서귀포시 상예리 마을 고문서
-서귀포시 상예리에 세거한 풍천 임씨
집안 고문서

영문류(57점), 소지류(10점), 호적류(45점),
분재기(16점), 차정류(12점), 성책고문서(5책
40면) 등 총 5책 170점 수록



제주 호적중초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 (1) 서귀포시 도순동 2019. 7. 26. ~ 7. 29. 마을 호적중초 등 고문서 자료 소장 확인 및 현지조사
(마을회장님과 구두 협의 후 사진 촬영 진행)
- (2) 대정읍 영락리 2019. 7. 25. 마을 관계자 회의 수행, 호적중초 등 고문서 자료 소장 확인
2019. 7. 30. / 8.2. / 8.6. 마을 현지조사 수행
- (3) 대정읍 하모3리 2019. 7. 25. 마을 관계자 회의 수행, 호적중초 등 고문서 자료 소장 확인
2019. 8.7. ~ 8.9. / 8.15. ~ 8.16. 마을 현지조사 수행
- (4) 제주시 장전리 2019. 9. 9. 마을 관계자 회의 수행, 호적중초 등 고문서 자료 소장 확인
2019. 9. 16. ~ 9.17. / 9.24. 마을 현지조사 수행



제주 호적중초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 (5) 제주시 상가리 ● 2019. 10. 10. 마을 관계자 회의 수행, 호적중초 등 고문서 자료 소장 확인
2019. 10. 17. ~ 10. 18. / 10. 21. ~ 10. 23. / 10. 28. / 10. 30. ~ 10. 31. 마을 현지조사 수행
- (6) 안덕면 덕수리 ● 2019. 11. 6. 마을 관계자 회의 수행, 호적중초 등 고문서 자료 소장 확인
2019. 11. 13. / 11. 15. / 11. 21. 마을 현지조사 수행
- (7) 대정읍 일과2리 ● 2019. 11. 14. 마을 관계자 회의 수행, 호적중초 등 고문서 자료 소장 확인
2019. 11. 26. 마을 현지조사 수행
- (8) 안덕면 사계리 ● 2019. 11. 28. 마을 관계자 회의 수행, 호적중초 등 고문서 자료 소장 확인
2019. 12. 13. / 12. 15. / 12. 17. / 12. 23. 마을 현지조사 수행



제주 호적중초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 (9) 서귀포시 하원동 ● 2020. 4. 7. 마을 관계자 회의 수행, 호적중초 등 고문서 자료 소장 확인
2020. 4. 29. 마을 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 현지조사 수행 확정
2020. 5. 4. ~ 5. 6. 마을 현지조사 수행
- (10) 대정읍 동일리 ● 2020. 4. 7. 마을 관계자 회의 수행, 호적중초 등 고문서 자료 소장 확인
2019. 4. 7. ~ 4. 8. / 4. 10. ~ 4. 11. / 4. 14. ~ 4. 16. 마을 현지조사 수행
- (11) 서귀포시 대포동 ● 2020. 4. 16. 마을 관계자 회의 수행, 호적중초 등 고문서 자료 소장 확인
2020. 4. 16. / 4. 23. ~ 4. 25. 마을 현지조사 수행
- (12) 대정읍 안성리 ● 2020. 5. 25. 마을 관계자 회의 수행, 호적중초 등 고문서 자료 소장 확인
2020. 5. 25. ~ 5. 30. 마을 현지조사 수행



제주 호적중초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 (13) 서귀포시 회수동 ● 2020. 6. 1. 마을 관계자 회의 수행, 호적중초 등 고문서 자료 소장 확인
2020. 6. 4. / 6. 6. ~ 6. 7. 마을 현지조사 수행
- (14) 서귀포시 중문동 ● 2020. 6. 1. 마을 관계자 회의 수행, 호적중초 등 고문서 자료 소장 확인
2020. 6. 8. ~ 6. 10. 마을 현지조사 수행
- (15) 서귀포시 월평동 ● 2020. 7. 16. 마을 관계자 회의 수행 예정(마을회장 및 월평마을 도시재생센터 관계자 미팅)
2020. 7. 25. ~ 7. 28. 마을 현지조사 수행
- (16) 제주시 수산리 ● 2022. 6. 16. 마을 관계자 회의 수행, 호적중초 등 고문서 자료 소장 확인
2022. 8. 3. ~ 9. 7. 마을 현지조사 수행



구분	소장지역	2019~2022년 마을 소장 호적중초 등 고문서 자료 조사 결과				합계
		호적중초	통적	민적부 및 호적부	기타류(질문, 성책류 등)	
서귀포시 대정읍	영리리	20책	5책	6책	28건	31책/28건
	하오3리	45책	40책	4책	35건	89책/35건
	안성리	36책	24책	3책	62건	63책/62건
	일과2리	1책	-	1책	3건	2책/3건
서귀포시 안덕면	동일리	49책	44책	2책	26건	95책/26건
	덕수리	44책	22책	5책	73건	71책/73건
	사계리	42책	-	5책	3건	47책/3건
	화순리	-	-	-	98건	98건
서귀포시	도순동	45책	20책	2책	45건	67책/45건
	화수동	26책	12책	2책	33건	40책/33건
	하원동	36책	20책	-	33건	56책/33건
	중문동	46책	13책	7책	8건	66책/8건
	대포동	39책	-	12책	28건	50책/28건
	월평동	16책	2책	-	15건	18책/15건
제주시	장전리	52여책(두루마리)	-	4책	15건 외 낱장	56책/15건
	수산리	40여책(두루마리)	-	11책	33건 외 낱장 다수	55책/33건
	상가리	26책	-	-	11건	26책/11건
합계		약 1,359책 내외(호적중초 546책, 통적 200책, 민적부류 64책, 기타류 549건)				

제주지역 마을 고문서 소장 현황

01 제주시 장전리

소장 실태(1)



01 제주시 장전리

소장 실태(2)



제주지역 마을 고문서 소장 현황

01 제주시 장전리

光武 四年 正月 日 / 新右面 / 長田里



01 제주시 장전리

光武 六年 正月 日 / 新右面 / 長田里



제주지역 마을 고문서 소장 현황

02 제주시 상가리

소장 실태(1)



02 제주시 상가리

소장 실태(2)



제주지역 마을 고문서 소장 현황

02 제주시 상가리

표제 미상



02 제주시 상가리

丁卯 正月 日 戶籍草 / 上加樂里



제주지역 마을 고문서 소장 현황

03 대정읍 하모3리

향장계 입회하에 문서 개봉



03 대정읍 하모3리

嘉慶三年戊午年九月日戶口成籍中草 / 下草瑟里



제주지역 마을 고문서 소장 현황

04 대정읍 영락리

咸豐八年正月日大靜戊午式戶籍中草 / 永樂里(1)



04 대정읍 영락리

咸豐八年正月日大靜戊午式戶籍中草 / 永樂里(1)



제주지역 마을 고문서 소장 현황

05 서귀포시 도순동

소장 실태(1)



05 서귀포시 도순동

소장 실태(2)



제주지역 마을 고문서 소장 현황

05 서귀포시 도순동

道光 五年 乙酉式 正月 日 戶籍中草 / 芑宋里(1)



05 서귀포시 도순동

道光 五年 乙酉式 正月 日 戶籍中草 / 芑宋里(1)



제주지역 마을 고문서 소장 현황

06 서귀포시 중문동

소장 실태(1)



06 서귀포시 중문동

민적부 소장



제주지역 마을 고문서 소장 현황

07 대정읍 동일리

乾隆 四十八年 癸卯 正月 日 日果里 戶口中草(1)



07 대정읍 동일리

乾隆 五十四年 己酉 正月 日 日果里 戶口中草(1)



고문서 조사 해제 발간 사업

- ☐ 자료 소장처(소장자) 확인
- ☐ 자료 분류, 정리 작업
- ☐ 자료 목록화 작업
- ☐ 자료 해제, 탈초 및 번역 작업
- ☐ 주석 및 논고 작성, 자료집 발간

2021년

제주 고문서 IV - 조천 김해김씨
김희정가 고문서



2011

국사편찬위원회 <지역사 자료 조사·수집 사업>
-고문서 및 고서 275건/ 고도서 1,120여건
-총 1,395건으로 파악

2014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자료 수집·조사
-고신, 소지, 탄자, 전령, 밀안, 준호구, 명문 등
-110여 점 조사 수집
-<고문서 집성> 110 발간

구분	조천 김씨 김희정 일가 문서 현황				합계
	시문류	고문서류	고서류	기타류	
건수	137건	213건	1085건	14건	1,449건
주요 자료	-김희정, 김성휴 문장 -해안시집, 해안문집, 도해록, 복유기 등	-준호구 -고신, 차첩, 소지, 명문, 상소, 사권, 묘지명 등	-조선광문회 출판 서적 다수 -중국 상해 인쇄 도서 다수	-명서, 명함 등	필사본 포함

고문서 조사 해제 발간 사업

- ☐ 자료 소장처(소장자) 확인
- ☐ 자료 분류, 정리 작업
- ☐ 자료 목록화 작업
- ☐ 자료 해제, 탈초 및 번역 작업
- ☐ 주석 및 논고 작성, 자료집 발간

2022년

제주 고문서 V - 옛 절목으로 보는
조선시대 서귀포

서귀포시 동지역 4개 마을(대포동, 도순동, 하원동,
화수동) 소장 절목류 총 39건 조사·연구 진행 중

- 작성시기: 18세기 후반~20세기 초

- 산채와 사채 및 사글의 폐단을 혁파하는 <산채사채사
글혁파절목>, 파선의 표류에 대한 정대 폐해를 시정하
기 위한 <파선소박리공제혁파절목>, 천담과 도매의 우
마도상의 폐해를 막기 위한 <삼군구매절목> 등 조선후
기 제주 지역 사회의 일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소개하고자 함.





다
그
려
주
는
이
학
자
의
제

제주학연구센터 제6회 제주학대회·제주학 주간

제6회 제주학대회 학술대회
“제주 고문서: 과거의 유산, 미래의 문화자산으로”

제주 지역 고문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제주고문서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제언

정 제 규 (문화재청 전문위원)

제주고문서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제언

정 제 규 (문화재청 전문위원)

1. 머리말

‘문서’는 주는 자(발급자)와 받는 자(수취자) 간에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고받은 글을 말한다. 문서를 주고받는 목적은 사람이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양상 때문이다. 이는 재산 분쟁에 관한 사실을 담기도 하고, 사람의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문서’는 사람이 사는 어느 장소에서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록물이다.

제주도의 고문서에 대해서는 1990년대부터 학자들에 의하여 알려져왔다. 개인과 문중 내에 소장되었던 전답문기와 분재문기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성격에 대한 고찰이 진행되었고, 2000년대에는 제주향교 및 삼성사 소장 고문서를 비롯하여 개인 소장 고문서 등이 소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과 2013년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의하여 15개처 약 1,750여 점에 이르는 고문서자료들이 다시 정리되었다. 이들 자료는 동리고문서와 문중고문서로서 ‘제주’라는 공간에서의 역사와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제주의 고문서’는 어떻게 보존, 관리되고 있는가. 또한 활용되고 있는가.

본고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간행한 『고문서집성』108책 및 110책에서 소개하였던 제주 애월 수산리·중엄리·하가리 고문서 및 제주 어도 진주강씨·조천 김해김씨·구좌 동래정씨 고문서를 대상으로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많은 분들과 함께 무엇이 미래지향적인 방안인가를 이야기 나누고자 한다.

2. 제주 지역 고문서의 조사 실례

1) 濟州 涯月 水山里·中嚴里·下加里 고문서

해당 지역의 조사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동 조사를 통하여 추진되었다. 조사 과정에 대한 간략한 글을 보면 고문서의 보존 관리에 정성을 들인 제주지역민의 깊은 관심을 짐작할 수 있다. 고문서에 대한 조사는 2013년 5월 30~31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촬영과 더불어 현지의 이장님들과 마을사무장들과의 인터뷰도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고문서집성』108책에는 총 116점의 고문서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들 유물은 수산리 24점, 중엄리 57점, 하가리 35점으로서, 이 자료들은 주로 부세와 관련된 節目 등 정책고문서들과 동리운영 등과 관련한 문서들이다. 다만 조사시 확인되었던 19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수십 책의 戶籍中草 자료와 더불어 오늘날까지의 근대자료들은 수록되지 않았으나, 제주 지역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문서로서 이해되고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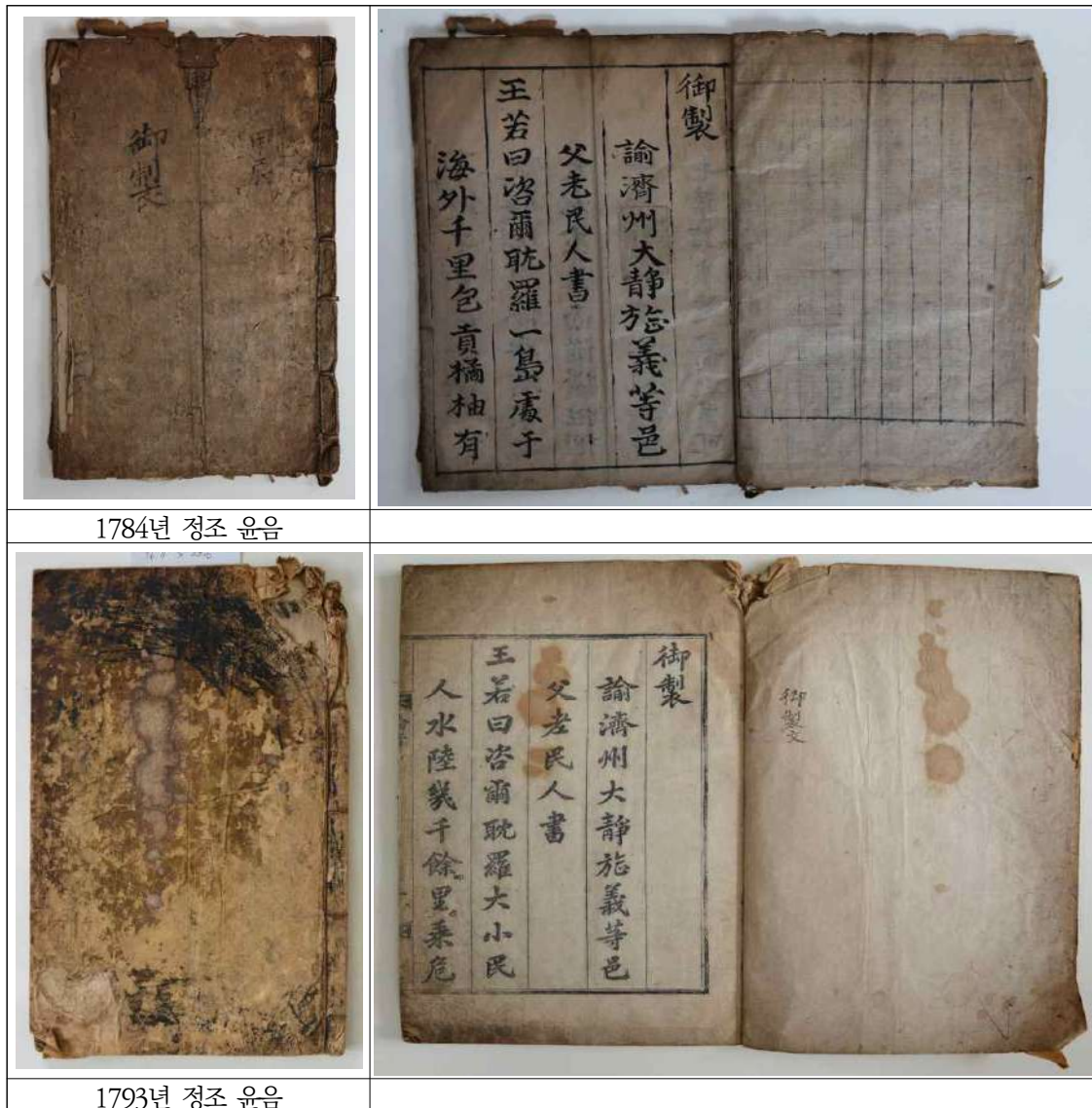
문서 가운데 68점이 牒關通報類, 證憑類 26점, 置簿記錄類 13점이며 그 외에도 教令類 5점, 疏筭啓狀類 2점, 明文·文記類와 詩文類 각 1점씩 수록되었다.

	教令類	疏筭啓狀類	牒關通報類	證憑類	明文文記類	置簿記錄類	詩文類	합계
수산리	2		18			4		24
중엄리		2	28	22	1	3	1	57
하가리	3		22	4		6		35
합계	5	2	68	26	1	13	1	116

첩·관·통보류 문서들의 다수는 節目으로, 제주에 파견된 어사나 제주목사 등이 부세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작성하여 반포한 문서들이다. 이 자료들은 제주의 동리고문서의 성격을 대표하는 문서라 할 수 있다. 증빙류 문서는 중엄리에서 많이 확인되었다. 동리의 운영과 관련한 합의와 증명을 위한 문서들이다.

5점의 교령류 중 4점은 綸音으로, 19세기 후반 정조가 제주의 흥년과 행정을 살피기 위하여 어사를 파견하면서 반포한 자료들이다. 당시 중앙정부는 제주에 흥년이 들거나 민란 등이 발생하였을 때 어사를 파견하여 진휼을 주관하거나 민란의 수습과 폐단의 개혁조치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파견된 어사는 행정과 부세, 사법 등의 제주 전반에 대한 일련의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고, 그 결과를 절목으로 작성하여 각 리에 지급하였다.

1) 姜昌龍, 「濟州啓錄에 나타난 濟州農業과 還穀」, 『제주도사연구』 2, 1992. 姜昌龍, 「朝鮮後期 濟州 還穀制의 運營實狀」,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一志社, 1997. 權仁赫, 「朝鮮後期 地方官衙 財政의 運營實狀 - 濟州의 《事例》를 중심으로 -」, 『耽羅文化』 16,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8. 權仁赫·金東柱,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耽羅文化』 19,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8. 金東柱, 「19세기 戶籍制 運營의 弊端과 對策 - 제주지방 호적관련 節目을 중심으로 -」, 『玄旨金榮墩博士華甲紀念 濟州文化研究』, 1993. 金東柱, 「朝鮮後期 濟州地域 戶籍中草의 實態와 그 性格」, 『역사민속학』 20, 2005년 6월. 文現姪, 「조선후기 戶口文書의 작성 과정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년 6월. 朴贊植, 「19세기 濟州 지역 進上의 실태」,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一志社, 1997. 梁晉碩, 「18, 19세기 제주의 收取制度和 特徵」, 『耽羅文化』 24, 2004년 2월. 許元寧, 「19세기 濟州島의 戶口와 賦稅運營」,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년 2월.



치부·기록류에는 戶口에 대한 조사장부가 7점 존재한다. 각 리마다 수십 책씩 보유하고 있는 호적증초는 수록하지 않았지만, 그 외의 호구조사책들은 수록하였다. 여기에는 內·外籍으로 칭해지는 호적증초와 거의 동일한 호구조사 기록과 더불어 1906년(광무10)에 수행한 戶口門牌調查의 결과물과 1912년에 환곡의 운영을 위해 작성한 장부 등이 포함된다.

소·차·계·장류는 2점이 다 所志類 문서로, 부세의 조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중엄리에서 제주목에 올린 문서이다. 1점의 명문·문기류는 1901년(광무5)에 중엄리 동중이 田地를 매입하면서 작성한 田畠賣買明文이고, 마지막으로 1점의 시문류 자료는 1735년(영조11)에 강재항이 제주목사로 부임해 가는 김정(1670~1737)에게 지어 보낸 글이다.



1822년 호적소정식조례성책

2) 濟州 於道 晉州姜氏·朝天 金海金氏·舊左 東萊鄭氏 고문서

해당 조사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동 조사를 통하여 추진되었는데, 2012년 7월 23일 사전조사 및 협의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조사계획과 일정이 논의되었다. 이후 2012년 10월4일 한림읍 소재 진주강씨 소장 고문서 자료를 시작으로 문중고문서들이 조사되었다.

진주강씨 姜受璜 후손가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고문서는 약 500여 점으로 15세기 중엽 於道에 入島한 이래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자료가 고르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7~18세기에 작성된 자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1차 조사 이후 진주강씨 姜鳳祉 후손가에 전해지는 자료 약 116여 점이 추가 조사 되었다.

동래정씨 문중의 고문서는 鄭錫祿 후손가에 전하는 자료 약 20여 점이 확인되었다. 문서의 유형은 白牌, 告身, 差帖, 望記, 試券, 手記, 分財記 등이 조사되었다.

朝天에 세거해 온 김해김씨 문중의 고문서는 金義正 후손가에 전하는 자료 약 110여 점이 조사되었다. 문서의 유형은 白牌, 告身, 所志, 稟目, 單子, 牒呈, 傳令, 差帖, 立案, 准戶口, 試券, 分財記, 明文, 相換記 등이 확인되었다.

이상 조사되었던 유물 가운데 근현대 자료를 제외한 고문서의 유형과 수량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敎令類	疏劄啓狀類	牒關通報類	證憑類	明文文記類	置簿記錄類	詩文類	합계
진주강씨 (강수환)	25	56	104	93	210	4	1	493
진주강씨 (강봉지)	1	1	9	33	49	12		105
동래정씨	2		13	4	3			22
김해김씨	2	20	6	66	5	6		105
합계	30	77	132					

『고문서집성』110책에는 총 696점의 고문서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들 유물은 진주강씨 姜受璜 후손가의 유물 492점, 姜鳳祉 후손가의 유물 83점 및 동래정씨 鄭錫祿 후손가의 유물 22점, 김해김씨 金羲正 후손가의 유물 99점 등이다.

진주강씨 강수황 후손가에 가전된 고문서는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진주강씨의 입도조 姜渭亮(1450~1544) 이후 姜彦雄(1527~?)·姜彦俊(1530~?)·姜繼男(1574~?) 대에 작성된 입안, 소지, 명문 등 16세기 고문서 사례가 현전하고 있으며, 姜受璜(1607~1688)·姜斗炯(1628~1709)·姜世隆(1649~1709)·姜汝敏(1669~1729)·姜弼聖(1692~1738)·姜時揚(1719~1801)·姜鳳休(1743~1822) 대에 작성된 17~18세기 고문서 자료가 집중적으로 남아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명문문기류는 3종 210점으로 재산상속, 토지매매, 노비매매 등과 관련된 分財記 27점, 明文 180점, 決給文 3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분재기는 재산을 상속하는 주체나 재산을 분재하는 사유 등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된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재하는 경우와 경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재산을 별급한 문서 사례가 남아 있다. 명문은 토지나 노비, 가사 등을 매매할 때 주고받은 계약문서로 전체 명문 가운데 토지매매 171점, 노비매매 6점, 가사매매 3점으로 토지를 매매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다.

한편, 강봉지 후손가의 자료 가운데 명문문기류는 分財記, 明文, 成置文 등이 확인되었다. 분재기는 부모가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재한 경우와 부모 사후에 자식들끼리 재산을 분재한 사례 등 여러 경우가 보인다.

김해김씨 김희정 후손가의 자료 가운데 교령류는 2종 2점으로 白牌 1점과 告身 1점이다. 백패는 1891년(고종 28)에 金恒裕가 進士試에 입격하고 받은 합격증서로 진사 3등 제254인으로 입격하였다. 고신은 1891년(고종 28)에 金羲正이 通仕郎行崇仁殿參奉에 제수되면서 발급받은 임명문서이다. 소차계장류는 5종 20점으로 上疏抄 1점, 所志 12점, 稟目 1점, 單子 5점, 四祖單子 1점이다. 상소초는 崔益鉉의 사직상소와 고종의 비답을 베껴 놓은 사례로 9월 18일과 10월 9일에 議政府贊政을 辭職하는 上疏와 高宗의 批答, 11월 19일과 12월 19일에 宮內府特進官을 辭職하는 上疏와 高宗의 批答이다.

또한 첩관통보류는 3종 6점으로 牒呈 1점, 傳令 2점, 差帖 3점이다. 첩정은 1891년(고종 28) 6월에 김희정이 使相에게 올린 소지에 따라 6월 18일에 濟州牧使兼全羅道水軍防禦使가 禮曹에 보고한 문서이다. 幼學 金羲正이 丁亥年(1887)에 陞補初試에 입격하여 會試에 응시하기 위해 上京하여 赴學하려고 하니 公文을 작성해 달라고 청원한 내용이다. 명문문기류는 3종 5점으로 分財記 2점, 相換記 1점, 明文 2점이다. 분재기는 모두 初闕日에 별급한 사례이다. 상환기는 1852년(철종 3)에 妹氏와 甥이 토지를 서로 맞바꾸면서 작성한 사례로 南門外 敦水邊員에 있는 오라버니의 妻家給田 皮牟 10斗付와 朝天境內 小伐院員에 있는 누이의 衿得田 皮牟 10石付를 상환하되, 時值가 서로 맞지 않아서 8疋木 더해 받는다는 내용이다.

동래정씨 정석록 후손가에 가전된 고문서의 수량은 8종 22점이다. 유형별로 파악해 보면 교령류 2종 2점, 첩관통보류 2종 13점, 증빙류 4종 4점, 명문문기류 1종 3점으로 구분된다.

교령류는 2종 2점으로 白牌 1점과 告身 1점이 있다. 백패는 1825년(순조 25) 鄭益煥(1801~1885)이 進士試에 3等 第2人으로 入格하고 받은 합격증서이다. 당시 진사사에서 작성한 답안지와 같은 해에 아버지 鄭景集(1765~1847)이 진사시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토지를 별급해주면서 작성한 분재기가 함께 남아 있다. 고신은 1743년(영조 19)에 이조에서 왕의 명령을 받들어 鄭錫祿(1721~?)을 通德郎에 임명한 문서이다. 아버지 成均館直講 鄭敏選(1683~1746)이 別加받은 것을 아들에게 대신 代加해 주었기 때문에 정5품에 해당하는 문관의 품계에 오르게 되었다.

첩관통보류는 2종 13점으로 差帖 12점, 望記 1점이 있다. 차첩과 망기는 兼防禦使(濟州牧使)가 別監, 風憲, 鄕校 訓長, 靑衿修案 查監, 左書齋 都有司 등을 임명하면서 발급한 문서로, 鄭錫祿, 鄭泰老(1741~1805), 鄭景集(1765~1847), 鄭基周(1825~1890), 鄭在南, 鄭基儉(1819~1901)에게 발급한 사례가 남아 있다. 명문문기류는 1종 3점으로 분재기 3점이다. 갓 시집온 며느리가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과 만날 때 재산을 별급받은 경우와 과거시험 합격을 축하하면서 별급받은 사례에 해당한다. 初謁日에 별급받은 경우는 1736년(영조 12)에 媼母 金氏(1682~1743)등이 子婦 姜氏(1715~1775)에게 토지와 노비를 별급한 사례로 정석록(16세)의 처 강씨(22세)가 시집 와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날에 母 金氏(55세)를 비롯하여 長兄 錫祺(1712~1753), 三寸 敏進(1696~1755)이 재산을 별급해 주었다. 이후 십 여 년이 지난 1748년(영조 24)에 媼母 金氏가 子婦 姜氏에게 다시 토지와 노비를 별급하였다. 그 이유는 長女가 成婚할 때 별급했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初謁日에 子婦 姜氏에게 중복으로 별급하여 추후에 해당 재산을 두고 자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登科를 축하하면서 별급한 경우는 1825년(순조 25)에 아버지 鄭景集(1765~1847)이 장자 鄭益煥(1801~1885)에게 토지를 별급한 사례로, 을유년(1825)에 진사시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면서 토지를 별급해 주었으며 이와 관련된 백패, 시권이 함께 남아 있다.

3. 제주 고문서의 보존, 관리 및 활용 방안

1) 제주 고문서에 보이는 공통의 역사성 부각

제주 지역 고문서 자료는 특정 지역과 그 지역에서 대대로 세거한 성씨집단에서 생산·전래된 동리고문서 및 문중고문서 자료들이 많다. 이들 자료는 육지와 다른 제주의 특별한 동리조직의 역사 속에서 생산과 보존이 이루어졌다.

제주지역 여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자료는 16세기 임난 직후 자료에서부터 17~19세기 작성된 관직의 임명과 교체, 노비나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 호적, 재산상속, 신분증, 과거응

시, 채무 분쟁, 족보 편찬, 관혼상제, 일기 등 각 개인 또는 문중의 역사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엿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이같은 고문서로서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 정리된 바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제주 고문서자료에서 시간적·공간적 특성을 살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자료는 16세기 말에 작성한 사례가 현존하고 주로 17~18세기에 작성된 자료가 집중적으로 남아 있으며 19~20세기에 생산된 자료가 함께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런데 동리고문서의 경우에는 18~19세기에 상당수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연속선상에 있는 문중고문서와 동리고문서의 역사성을 주의하며 그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다.

둘째, 제주 지역의 고문서는 육지에서 확인되는 일반적인 고문서의 유형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섬과 육지라는 공간적 차이 속에서 그 전개의 양상이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 사례로 紙牌가 있다. 이 유물은 육지에서도 드물게 확인되는 자료 가운데 하나로, 숙종 때에 기존에 사용하던 호패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위조를 방지하고 후대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종이로 만든 지패를 사용하도록 한 제도 하에서 생산된 문서이다. 이 제도는 1675년(숙종 1)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혁파되었다. 즉, 1680년(숙종 6)에 지패에 대한 폐지 논의가 있었고, 1685년(숙종 11)에 지패를 목각으로 바꾸어 시행하되, 다만 흥년이 들어 소요하니 서울에서만 먼저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문중고문서 가운데 확인되는 지패 사례는 1678년(숙종 4) 1건, 1681년(숙종 7) 2건, 1686년(숙종 12) 2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숙종대의 지패 사용과 폐지에 대한 역사성을 살필 수 있는 중요자료라 할 수 있다.

셋째, 제주지역의 고문서 가운데 공적인 문서에는 ‘섬으로서의 제주도’이기에 나타나는 특정 유형의 자료들이 많다는 점이다.

그 사례로 고신과 유지를 들 수 있다. 이들 자료는 중앙관직에 임명하는 문서이나 제주지역의 경우 육지에 비해 사례가 매우 적은 편이다. 반면, 육지와 달리 삼읍에 설치된 유향소의 좌수, 별감, 이방과 각 동리의 업무를 맡아보던 풍헌, 약정, 경민장 등을 임명하는 사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모두 차첩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군직의 경우에는 대개 전령으로 임명하는데 助防將, 把總, 千總, 哨官 등과 같이 제주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해안일대를 중심으로 배치된 해안 방어 시설을 관장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한 사례가 상당수에 해당한다. 또한 한라산을 중심으로 주변에 펼쳐진 목장을 관리하기 위해 馬監이나 首監을 전령으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넷째, 제주 지역의 고문서에는 제주지역이 지닌 지리적인 여건과 역사적 상황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 각 문중에 현전하는 시권 사례와 족보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 제주지역에서 시행된 鄕試와 陞補試에 응시하여 입격한 인물이 대부분이다. 육지에 비해 중앙보다는 제주라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제주 고문서에는 자녀 또는 가족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는 문서에서 제주의 특수성이 반영되고 있다. 곧 육지에서는 분재 대상의 경우 대부분 토지나 노비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반면, 제주도에서는 토지가 주를 이루고 노비 상속에 대한 비중은 매우 적은 편이고, 오히려 소나 말을 상속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주도에 설치된 목장과 밭을 일구는 데 소를 이용한 농업이 발달한 제주지역의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기록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포괄적 보존 관리 체계의 구축 필요성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이루어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사를 통하여 구축된 제주 지역 고문서는 현존하는 모든 유물의 일부에 해당한다. 그러나 목적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여 목록화 및 사진 자료 구축 그리고 자료 발간 및 한국학 자료 포털에서의 서비스라는 활용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아직도 그 한계는 여실히 보이고 있다. 최근 논고를 위하여 방문한 포털에서는 간행된 자료의 사진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제공되고 있었다. 물론 소유자 및 운영기관의 특별한 사정이라 여겨지지만 특별한 공지가 없는 상태에서 사정을 추측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같은 현실은 제주 고문서를 비롯한 기록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선 제주지역의 고문서 자료에 대한 자원조사 및 활용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제주 지역에 대한 지난 연구 성과는 조사·수집·정리와 함께 『고문서집성』과 같은 영인본 자료집의 발간과 포털서비스에 이르는 과정을 보이고 있어 분명 돋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라는 지역을 놓고 본다면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추진되었던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하여 조금더 본격적인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고문서를 비롯한 제주 지역 기록유산의 자원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최근 문화재청은 비지정 기록유산의 자원조사 및 활용 기본계획을 구축하고 2022년 1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슷한 개념과 전망을 지닌 계획과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하여 제주지역 고문서의 중요성과 발굴의 필요성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실증적인 고문서 자료를 통해 제주도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연구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용한 자료는 문화재 기본계획의 추진 경과 과정 및 새로운 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관련 자료이다.

자료1. 문화재 기본계획의 수립 경과²⁾

□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02~2011, 10년)

-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1999.1.)
- (계획목표) 원형보존을 통한 문화정체성 확립, 개발과 보존의 조화, 문화재 향유권 신장
- (내용) 원형보존, 체계적 관리, 효율적 활용

□ 문화재정책 중장기 비전 문화유산 2011 (2007~2011)

- (비전) 문화유산으로 국민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주는 문화재청
- (정책목표)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구현,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 실현,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
- (내용) 핵심역량 강화(Capability), 합리적 보존(Conservation), 협력적 관리 정착(Cooperation), 가치활용 활성화(Cultivation)

□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 (2012~2016)

- (비전) 소통과 융합으로 문화유산 보존·활용 체계 선진화
- (정책목표)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보존관리 강화 및 활용 활성화,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와 사유재산권의 보호기반 확대, 우리 문화유산의 국제적 위상 강화
- (내용) ①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호 ②문화재 안전관리 및 보존역량 강화 ③문화재 보존정비 체계화 ④문화재 첨단 기록정보화 ⑤문화재 가치활용 및 산업화 ⑥문화재 연구교육역량 강화 ⑦문화재 국제교류 활성화 ⑧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화(2011.2)

경과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002년에는 ‘원형 보존을 통한 문화정체성 확립’이 중점 목표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2007년에는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함께 ‘가치 활용 활성화’라는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었다. 이후 2012년에는 5가지의 정책 목표가 수립되었는데, ‘국민의 문화향유권’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 ‘보호기반 확대’, ‘국제적 위상 강화’ 등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던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변화는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주 지역의 고문서를 비롯한 기록유산의 기본 계획은 이같은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

2) 문화재 보존관리 활용계획('17 ~ ' 21) 참고 자료 재전제.

자료2. 문화재 기본계획의 연구 목적 및 필요성³⁾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문화재청은 2003년부터 지정문화재 중 중요 전적문화재의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여 국가 문화유산포털에 공개하고 있음
- 기록유산 관련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DB 검색 시스템 접근성이 떨어지고 구축 수량이 적음
- 비지정문화재는 2004년~2015년까지 연간 2억 원(초 24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 179개 조산처, 151,394건의 유물을 조사하였음
- 2016년 이후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중단되었고, 기록유산 특성상 분실·훼손 위험이 높아 상시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 문화재 정책이 지정문화재 중심에서 비지정 문화재까지 포괄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록유산 중 비지정 문화재를 포함한 조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사업은 첫째, 그동안 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기록유산(지정·비지정 문화재) 분야에 정책개선 및 발전 방향 연구
- 둘째, 기록유산 발굴 및 보존, DB구축, 일자리 창출, 콘텐츠 개발 및 활용 등 기록유산 정책과제 개발을 통한 기록유산(지정·비지정 문화재) 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기록유산 자원조사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중장기 발전 방향과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

또한 그동안 호적중초, 분재기, 명문 등과 같은 자료에 편중되었던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후속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고문서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정리·보존할 수 있는 전문 기관 및 관련 연구자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상 내륙에 있는 전문 기관의 위탁 관리가 사실상 쉽지 않다.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제주지역에 전문 기관을 두어 각 문중 또는 동리, 개인, 기관·단체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자료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문화재 보존관리 활용계획('17 ~ ' 21) 참고 자료 재전제.

2022 제6회 제주학대회 학술대회

제주고문서

과거의 유산, 미래 문화자산으로

발행일 2022년 10월 5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2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78, 3층

전화: 064-726-5623, 전송: 064-900-1840, 누리집 <http://www.jst.re.kr>

편 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제 작 도서출판 각(064-725-4410)

* 이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혀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비매품